

모두에게 열려 있는 원격연수!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가을의
상쾌함을 느낄 때
삶은 새롭기
다시 시작된다.”

상시과정 안내

* 기간 및 운영과정
2018. 9. 6.(목) ~
12. 4.(화)
126개 과정

* 대상
교원, 공무원, 일반국민
(만 14세 이상) 등


※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가 수강 기간, 수강 인원의 제한 없이 운영되는
상시과정의 형태로 전환되어 운영됩니다.

[작가의 숨결 따라 걷는 문학 여행]




- ◆ 문학(시, 소설)작품의 제작 배경을 역사의 흐름 속에 이해하기
- ◆ 문학 작품과 연계한 각 지역의 문학관 소개

[오페라로 풀어보는 인문학 퍼즐]



- ◆ 오페라의 등장 인물과 내용을 현대사회와 연결하는 인문학
- ◆ 역사의 사건을 오페라로 풀어가는 인문학

[미술관 옆 문학 여행으로의 초대]



- ◆ 인문학(문학, 미술 등)을 연계한 창의적 융합교육 자료 제시
- ◆ 교직원의 인문학적 감성 함양

행복한 교육

행복한 교육 2018년 11월

특별기획 - 평생학습 사람을 빛나게 하다



Vol. 436. 2018. 11.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인터뷰
특별기획 - 평생학습, 사람을 빛나게 하다
지금! 혁신교육 - 제주 다흔디배움학교 '납읍초등학교'

CONTENTS

November 2018 Vol. 436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duzine21@gmail.com)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02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인터뷰**
 “사람 중심의 교육패러다임으로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07 **특별기획**
 평생학습, 사람을 빛나게 하다
- 08 제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 12 인생 100세 시대, 삶이 풍요로운 세상을 향해
- 14 가까운 곳에서 만나는 ‘평생학습’
- 17 평생직업교육 혁신 방안



20



29



73

현장이야기

- 20 **지금! 혁신교육** 제주 다흔디배움학교 ‘납읍초등학교’
 마을이 품은 학교, ‘온 마을이 교실’
- 24 **삶과 교육** 윤수관 부산 대진전자통신고등학교 미술교사
- 28 **이런수업 어때요** 인천 선인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사례’
- 32 **아하! 진로체험**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 36 **나눔 실천하는 사람들** 전남영상미디어교사모임
- 38 **명예기자 리포트** 학생독립운동의 날, 11월 3일을 기억하다 외

정책이야기

- 44 **정책카툰** 불법촬영 범죄 근절
- 46 **이슈** 2018 대한민국 시민in 학생축제 참·소리
 “교육감 투표, 왜 어른만 하죠?”
- 50 **꽃 피는 교육자치** 충남/전남/광주/부산/세종
- 53 **대학교육** 공영형 사립대학, 교육 받을 권리와 국가책임론
- 56 **초점,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시대, 인문학의 물음



32

정보이야기

- 58 **세계의 교육 변화** 아시아의 시험문화(culture of testing) :
 추격 산업화 전략과 평가집착사회
- 62 **교육 썰전** 교과서 자유발행제
- 62 교과편찬의 자율성과 다양성, 그리고 교사의 전문성
- 64 교과서 정책과 교사의 ‘탈속련화’
- 66 **학급운영노트** 학습부진의 벽, 해법은?
- 68 **아이의 다락방** 공공의 적 형진이
- 70 **이야기 인문학** 2억 4000만 자에 담긴 조선의 모든 것
- 72 **일상의 심포** 빛고를 광주의 온기
- 76 **뉴스브리핑**
- 79 **행복 게시판**

표지이야기

제주 납읍초(교장 신금이)는 다흔디배움학교(다함께 배움을 이룬다는 뜻)를 통해 제주형 혁신교육을 이끌고 있는 대표 학교다. ‘수업혁신’을 통해 학생 중심의 우수한 교육활동을 펼치면서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학교 앞에는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금산공산이 자리하고 있다. 여기에 마을을 살리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과 교육에 뜻을 모은 훌륭한 조력자 애월협동조합 ‘이음’이 힘을 모으면서 온 마을이 말 그대로 교실이다. 학생들의 시화가 전시된 금산공원을 둘러보는 아이들, 자연이 곧 훌륭한 교실이 되는 순간이다.

“사람 중심의 교육패러다임으로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유은혜 부총리가 대한민국 첫 여성 부총리이자 교육부의 수장으로 임명된 지 30여 일이 지났다. 첫 행보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방문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출발선부터 평등한 교육의 실현”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의 변화와 혁신은 학부모, 교사, 교육청 등 현장의 참여와 지지가 함께할 때 가능하다.”며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해 나갈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후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문제가 불거졌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유은혜 부총리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마련을 위해 유치원 학부모와 간담회를 진행하는가 하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회,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장관 간담회, 시도교육청 협의회 등 연일 바쁜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미래교육의 방향은 ‘사람’이라는 유은혜 부총리를 만나 그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에 대한 구상을 들어봤다.

미래교육의 방향은 ‘사람’

대한민국 첫 여성 부총리이자 교육부 장관으로서 막중한 자리를 맡으셨습니다.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첫 여성 부총리이자,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교육부 장관이라는 무거운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교육은 온 국민의 관심사이며 기대가 크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는 사명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교육부 장관으로서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을 바꾸어

나가는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책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때로는 신중하게, 때로는 과감하게 추진해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대학, 시도교육청, 학교현장과 밀착하여, 정책 입안 단계부터 정책 발표 후 피드백과정까지 소통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래세대를 길러 내는 교육의 무게감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 생각하시는 미래교육의 패러다임이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래교육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진부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 교육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육을 지배한 것은 선진국에서 이룩한 경제를 빠른 시간 안에 따라잡기 위한 ‘추격 산업화 전략’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교육 패러다임은 소수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경쟁중심교육, 대다수 아이들을 획일적인 기준으로 서열화시키는 ‘공장식 교육’이었습니다. 자연스레 모든 아이들은 무한경쟁에 방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지식과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에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필요한 교육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교육, 그러면서 협력과 공존의 가치를 배우는 교육, 스스로 학습하고 경험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것이 ‘사람 중심 교육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부가 이러한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좀 더 힘 있게 추진하면서 모든 아이들이 다양한 삶을 추구하고, 개인의 소질



과 적성을 찾을 수 있는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유아교육이 한 단계 발전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취임하자마자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문제가 불거졌고 현안 해결을 위해 연일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계신데요,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실지, 그리고 유아공교육에 대한 향후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유치원이 학교로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동시에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키며,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방향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이 방안에 담긴 사항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기본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현장을 살피면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에 누리과정의 전면 도입되면서 국가재정이 투입되

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경비는 아이들의 교육에만 사용되어야 하고 정부는 이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국공립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에도 국가회계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며 회계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공립 유치원을 40%까지 확충하여 국공립 유치원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수 감소와 같은 사회변화를 감안할 때 유아교육도 혁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우리나라 유아교육이 한 단계 발전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말씀하셨는데,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 부문에서 해법을 찾는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육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하면서,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한 교육 시스템을 통해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그간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 확대, 고교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수혜자 확대 및 기숙사 확충 등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국가의 교육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고 봅니다. 저는 이러한 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질 생각입니다.

아울러 공교육의 생태계를 좀 더 확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공교육 안에서 책임교육을 실현하고,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망을 구축해 왔는데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학교와 학교 밖 학습경험이 서로 연결되는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 학교 안팎으로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학업지원체제를 구축해서 모든 아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생각입니다.

2019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시기가 앞당겨진 만큼 예산상의 어려움은 없나요?

저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매우 높다고 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교육감 후보가 대부분의 교육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17년 12월 실시된 학부모 1,500명 대상 여론조사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실시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6.6%에 달하는 등 정책 시행 여건이 성숙되고,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고려하여 고교 무상교육을 계획보다 일 년 앞당겨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극복한 나라들이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극복했는지 살펴보면, 돌봄을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함께, 성 평등, 일 가정 양립, 보육 인프라 구축, 안정적 일자리와 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문재인 정부도 대통령직속으로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설치하여 종합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현상이고 이에 대한 해법도 단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한 나라의 경우처럼 범부처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해 가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저는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온종일돌봄체계 실무지원 TF>를 구성하여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돌봄 모델을 개발하여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그밖에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확대와 온종일돌봄교실 20만 명 확대와 같은 정책도 차질 없이 준비해 갈 생각입니다.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학업지원체제 구축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으며 점차 그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사다리 복원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정책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가요?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교육부 장관으로서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을 바꾸어 나가는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물론 중요한 것이 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 국회와도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되돌아보면,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시작할 때도 예산문제가 제기되었지만 관련 부처의 협조로 잘 정착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예산 확보 방법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항을 관련 부처, 시도교육청과 협의하면서 전국 130만 명의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고교혁신 방안 중 하나가 ‘고교학점제’입니다. 취지는 좋지만 인프라 구축 등 보완해야 할 장치들이 많이 있는데, 고교학점제 어떻게 준비해 나가실 예정입니까?

며칠 전 고등학생들과 교육전문가들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토론회를 했습니다. 콘서트에 참여한 한 고등학생에게 고교학점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니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교학점제를 ‘붓’이라 표현하고 싶어요. 이 제도는 학생들이 저마다 색깔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죠” 저는 이 학생의 대답이 고교 학점제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교 체제의 변화는 하면 더 좋고 안 하면 그만인, 그런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미래교육은 고교 체제의 변화를 우리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똑같은 교육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붓으로 저마다의 그림을 그리듯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고교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혁신의 원동력이 고교학점제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따라 학습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미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교과목의 개설을 위한 교사 확충과 창의적인 학습 공간의 구축, 무학년 수업 등 고교학점제를 위해 갖추어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현장의 학생, 교사 학부모 등과 소통하면서 보완할 것을 보완하고, 안정적 도입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 중요

고교혁신과 대입제도는 떼어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논제입니다. 이번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입에 대한 신뢰회복의 목소리가 컸는데요?

대입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사회에서 대학입시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각자 처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여러 의견이 대립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입개편 과정에서는 특별히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고자 했습니다.

공론화에 참여한 다수의 시민참여단이 비록 원하지 않는 결과일지라도 존중하겠다고 답변한 것처럼 이번 공론화는 우리 교육이 보다 나은 교육으로 이어지는 첫걸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방안’이 최종 확정·발표된 만큼 교육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조기 도입과제를 발굴·추진하여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취임사에서 강조했듯이,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원칙을 가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합리성과 현장 수용가능성을 갖춘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학령인구의 감소는 고등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학구조개혁 등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우리 교육에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등교육도 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및 성장잠재력 둔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학 혁신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간 대학혁신과 관련하여 대학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면 기본역량진단에 관한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행복한 교육> 10월호에서 대학구조개혁이 단순히 학생 수 감소를 대비한 정원감축을 넘어서서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글에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국공립대학교는 국공립대학교대로, 사립대학교는 사립대학교대로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대학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교육체제를 혁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대학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지식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학술생태계를 구축하고,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데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의제 사회적 대합의 이끄는 '국가교육위'

지방교육자치의 강화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가족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가능하게 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교육부 역할이 궁금합니다.

교육의 다양성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가진 초중등 교육 권한을 교육청과 학교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 영역을 중심으로 기능을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은 지방으로 교육부의 역할을 단순히 넘겨주거나 교육부의 기능을 축소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정책의 거버넌스를 새롭게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는 것을 넘어서서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간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교육적인 교류와 소통을 증진해야 합니다. 이 말은 중앙과 지방과의 협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자치가 강화되어도 온종일돌봄, 혁신교육지구 등과 같이 지방정부, 시도교육청, 중앙정부 모두가 협력하여 추진해야 할 일들은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이고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배경과 관계없이 꿈을 이루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교육부의 역할은 다양하고 더욱 중요해 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여 중장기 교육정책과 비전을 다루게 함으로써 정권차원을 넘어서는 교육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한다는 취지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구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취임사에서 교육정책 결정의 새로운 거버넌스인 <국가교육위원회>를 2019년에 출범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분야 주요 국정과제로서,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교육 정책의 수립과 교육 개혁을 위해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와 같이 <국가교육위원회>도 교육부와 어떤 권한을 나누는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보다는 교육 의제에 대한 사회적 대합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요구되는 교육정책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어떤 위상과 권한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논의는 사회부총리 부서로서 교육부에 요청되는 역할, 이를테면 타 부처와의 관계 속에서 교육정책을 조정하는 역할, 교육부 역할 재정립, 초중고 권한의 시도교육청 이양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와 초중등교육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교육부에서는 교육 거버넌스 개편 지원팀이라는 부서를 신설했고,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교육부 안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부터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교육회의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차질 없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㉔



특별기획

평생학습, 사람을 빛나게 하다

- 1. 제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 2. 인생 100세 시대, 삶이 풍요로운 세상을 향해
- 3. 가까운 곳에서 만나는 '평생학습'
- 4. 평생직업교육 혁신 방안

제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늘 배움으로 여는 새로운 삶

“두 번째 인생, 참 살맛납니다.”

올해 환갑을 맞이한 김만식(60) 어르신. 그에게 2년 전부터 ‘전래놀이터 활동가’라는 직함(?)이 새로 생겼다. 평생학습센터에서 배운 전래놀이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놀이에 얽힌 재미난 지역문화를 설명하는 재미에 푹 빠졌다고.

“5년 전 충북 단양으로 귀촌한 이후, 전래놀이터 활동가로 봉사에 나서고 있어요. ‘선생님’ 소리도 듣고, 젊어지는 것 같아 여러모로 좋네요. 심심할 새가 없어요.”

충북 단양평생학습센터는 민속문화재 죽령산신당과 연계된 다자구 할머니 설화를 바탕으로 전래놀이, 책놀이 등을 개발하고, 지역주민 대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정 과정을 수료한 이후에는 활동가로서 지역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다. 김 어르신은 “배움으로 새 인생을 산다.”며 환하게 웃는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배움 열정 가득

지난 10월 25일(목)부터 27일(토)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는 전국에서 모인 평생학습인들의 축제장이었다. 전국 지자체와 대학, 평생학습기관, 공공기관, 마을기업 등 318개 기관에서 723개에 달하는 다양한 체험·전시부스를 운영하고, 평생학습 국제세미나, 평

생학습 강의경연대회, 평생학습 동아리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줄을 이었다. 또한, 현대무용가 정진우, 코미디언 김원효, 작가 요조 등 유명인들의 인문학 강연이 열려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 국가평생학습진흥원이 주관한 가운데 ‘평생학습, 사람을 빛나게 하다!’는 주제로 평생학습의 그간 성과를 공유하고, 평생학습 참여 동기를 일깨우는 행사로 치러졌다. 2012년 대전에서 시작된 이후, 2016년 5회째부터 2년 주기로 변경되며 열린 첫 번째 행사로 관심이 더욱 뜨거웠다.



1. 제1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수상자 기념촬영 2. 제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막식 3. 박람회 체험부스
4. 여수 여도중 학부모 동아리 '쪽빛하늘' 5. 교육부·국가평생학습진흥원 전시 부스



박람회 현장은 배움의 열기로 가득했다. 전남 홍보관 한쪽에 자리한 ‘쪽빛하늘 동아리’. 여수 여도중 학부모들로 구성된 이 동아리는 김해호 교사 주도로 염색 과정을 배운다. 김 교사는 “27년째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다. 염색을 배우면서 매력을 느끼다가 학부모를 위한 염색 동아리를 만들었다. 2년 전부터 시작해 2주에 한 번씩 모이는데, 2기까지 26명이 함께 하고 있다.”며 “스카프 등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염색 과정을 배우며 매우 즐거워하신다. 만족도가 높고, 여기서 염색을 배워 공방을 하는 분도 있다.”며 뿌듯해했다. 강원 철원군은 농촌 어르신들을 위한 ‘짚풀공예 마을’을 운영 중이다. 수강생 평균 연령은 65세 이상. 사라져가는 옛 전통을 살리고, 농한기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시작된 짚풀공예 프로그램은 이젠 지역의 이색 체험 관광과 볼거리로 거듭났다. 박종찬 짚풀공예가는 “어르신들은 어릴 때 추억이 있다. 쉽게 배울 수 있어서 다들 즐거워한다.”고 말한다.

이번 박람회는 과거보다 다양한 분야의 자발적 학습모임이 생겨나고, 이들의 배움이 재능기부와 봉사활동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지자체별로 특색 프로그램 운영

반면, 경기 동두천시는 평생학습동아리 ‘예술야학 도란도란’을 선보였다. 황토를 활용한 호박스텐드 만들기 체험부스를 운영한 도란도란 수강생 지역민들. 아트공방을 운영하는 김옥의 조각가는 “지역 예술가 10여 명이 대부분 재능기부로 참여하고 있다. 황토를 이용한 예술체험은 정신적인 ‘농사’를 짓는 일”이라며 가르치는 보람이 있다고 웃는다.

대학의 평생교육대학원 문을 두드리는 이들도 늘었다. 부산대 평생교육대학원에서 조향사 과정을 배우고 있는 신혜경(45·부산) 씨는 “배움을 통해 자기계발의 기회를 얻고 있다. 민화를 배우다가 이번에 조향사 과정이 새롭게 생겨 배우게 됐다”며 “평생교육대학원은 사설학원보다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고, 최근 다양한 과정들이 개설돼 좋다.”고 말한다.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자체별로 특화된 프로그램도 선보이고 있다. 경기 부천은 직장인이 퇴근 후 쉽게 들을 수 있는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소 인근을 학습공간으로 지정한 ‘퇴근학습길’을 통해 자기계발과 힐링 기회를 제공한다. 현재 19개소에서 4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2016년 시작한 이래 참여자 만족도가 97.2%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서울 구로구는 지역 인구의 11%를 차지하는 외국인 주민의 자립을 돕는 ‘다문화 명예 통장’과 구로공단 소재지이자 노동운동의 메카로서 상징성을 발전시켜 ‘내 삶을 바꾸는 위라벨 콘퍼런스’, ‘구로 내비게이터 양성 과정’ 등 이색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이 외에도 울산은 재능과 노하우를 보유한 지역주민이 단계별(기본, 전문스킬업, 보수)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우리 동네 지식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풀(pool)을 마련, 맞춤형 교육과정을 평생학습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 아울러, 청주의 ‘딩동! 찾아가는 평생학습’, 대전의 ‘배달강좌제’ 등 교육기관 접근이 어려운 도서벽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도 속속 내놓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과거보다 다양한 분야의 자발적 학습모임이 생겨나고, 이들의 배움이 재능기부와 봉사활동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또한, 지역주민이 나서서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의 활성화와 이를 토대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현장도 엿볼 수 있었다. ⑦



6. 충북 단양 전래놀이 활동가 7. 서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전시한 부스 8. 평생학습 참여자들이 운영하는 체험 부스



제1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수상
“배움으로 이룬 삶, 아이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대상 박진관 씨

‘개간하는 자에게 황무지 없듯 노력하는 자에게 헛수고 없다’

제1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에서 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박진관(56) 씨. 그가 건넨 명함에 적힌 글귀는 그의 삶을 오롯이 대변한다. 어려운 가정형편에 공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그는 배관기술을 배워 건설 현장에서 일찍부터 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20대에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1급 자격증 3개를 취득하고, 기능대학 야간부에 진학해 배관기능장도 거머쥐었다. 이후에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받고, 공학박사를 받기까지 학업을 이어갔다. 그 결과 지금은 건축설비직종 최초의 대한민국 명장이자 건설사업관리(CM) 회사의 임직원으로 왕성히 활동하고 있다.

“배움은 끝이 없습니다. 더욱이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국가 지원도 다양하고요. 요즘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데, 대학 간판만 보기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야죠.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요? 제 삶이 그럴 수 있다는 증거 아닌가요?”

그는 대학 진학 일변도의 입시지옥에서 자신의 삶이 ‘희망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단언한다. 대학 간판 없이 꿈을 이룬 자신의 삶 자체가 아이와 학부모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망설임 없이 같은 선택을 하겠다는 그는 이제 자신의 경험과 학습 결과를 나누는데 열정을 쏟고 있다. 모교 후배들을 위한 진로지도와 장학금 전달 외에도 소외계층 초·중·고 학생 대상 진로지도, 영세 건설업체에 대한 기술 지원과 집수리 봉사활동 등에도 앞장서고 있다. “70개교 3만여 명의 학생들과 만났다. 앞으로 학부모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하고 싶다.” 그는 “배움은 즐거움이고, 나눔을 통해 완성된다.”고 말한다.

우수상 광주광역시 북구 ‘인생배움터 무릎학교’

‘인생배움터 무릎학교’는 광주 북구청이 2015년부터 시작한 특성화 사업이다. 행복학습센터를 거점으로 배움을 환원하는 마을별 평생학습 플랫폼을 조성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학습형 일자리 연계 사업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마을인문(전라도 사투리 인

문학 과정, 할머니 이야기보따리 강사 양성 과정 등) △숨씨(엄마표 예술놀이 강사 양성 과정, 생활공방 디자이너 과정 등) △골목(토박이 골목기술 과정) △마을예술 캠퍼스(우리동네 예술홍보단 등) 4개 분야 사업을 추진한다.

우수상 전라북도 군산시 ‘평생학습을 통한 군산원도심 재생사업’

군산시가 추진한 원도심 재생 프로젝트는 평생학습을 통해 지역주민의 애乡심을 높이고 근대역사문화유산을 지키면서 경제 활성화를 끌어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관광 프로젝트에 주민들로 구성된 공동체 참여를 이끄는 한편, 도

시재생대학 강좌, 군산 토박이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제작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아울러,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를 통해 일상생활 주변 공간을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에 이르고 있다.

인생 100세 시대, 삶이 풍요로운 세상을 향해



초연결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교육의 변화

초연결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는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여 널리 있는 지식과 정보를 연결하고 통섭하는 것이 중요해 지고 있다. 문제를 인식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다양한 대안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학습자들이 확실히 지식을 습득하기보다 스스로 학습하는 역량이 길러질 때 가능하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교육을 위한 변화의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01년 OECD 교육혁신연구센터(CERI)는 ‘Schooling for Tomorrow Project’에서 20년 후 이상적인 미래 학교를 지역사회의 구심과 학습을 위한 중점기관, 다양한 학습자 네트워크들과 공존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는 학교가 지닌 경계가 이완되어 사회의 각 영역들과의 연계를 의미하고, 교육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각 영역들과 연계하여 이루어지고, 그 연계의 핵심 역할을 학교

가 담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공동체를 통한 교육혁신

이렇게 사회 변화에 따라 미래의 교육과 학교체계는 구조적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동안 국가 차원의 법과 제도를 통한 거시적 변화(top-down)는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제는 경쟁과 입시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핵심역량 함양, 모든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교육으로의 변화를 위해 학

교와 학급을 단위로 하는 단위학교 중심의 교육혁신이 진행되고 있다.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지구 정책의 확산, 학생 진로 맞춤형 고교학점제, 자유학기(학년)제 정책은 학교가 ‘고립’을 탈피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의 교육공동체로서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각 주체들의 기대와 요구가 달라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이러한 경험은 교육의 변화를 위한 소중한 자양분이 되고 있다.

평생학습 열풍, 넘어에 존재하는 것

우리 사회는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학습 열풍이다. 너나없이 평생학습을 이야기하고 평생학습을 경험한다. 이러한 현상을 평생학습 체계가 탄탄해져서 평생학습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점으로 일부를 설명할 수 있지만, 유튜브나 무크와 같이 온라인으로 접하고 있는 무궁무진한 콘텐츠들은 학습에 대한 개인의 요구가 그만큼 높고, 이러한 욕구를 해소하고자 하는 희망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

평생학습이 현대인들의 공동체성 상실의 문제를 푸는 중요한 열쇠가 되어 삶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 자신과 타인의 삶을 들여다 보면서 진로(career)를 탐색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렇다면, 평생학습은 개인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기대, 개인의 삶의 질 제고에 부응하고 있을까? 어쩌면 평생학습의 붐을 현대인들이 과도한 경쟁과 소외, 계층 간 갈등에서 겪게 되는 공동체성 해체와 이로 인한 상실감을 치유하고자 하는 바람이 아닐까 한다. 사실 우리나라 평생학습의 원형인 지역사회교육은 개인의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평생학습이다. 학습을 통한 공동체 형성과 지역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지역공동체 평생학습’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지역주민들이 직접 해결하고, 지역공동체의 본질적인 가치를 회복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상실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평생학습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따라서 평생학습은 개개인의 일상적인 삶에 밀착되어 그들 삶의 밑바닥으로부터 제기되는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것을 요구받는다. 개인들은 평생학습을 통해 지역에서 생활인으로서 자립에 필요한 학습을 하고 지역의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 타인과 공동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학습공동체를 통해 상실감을 함께 고민하고, 삶을 깊이 성찰함으로써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

지역에서 교육혁신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혹은 행복교육지구) 정책들은 학생들의 삶의 공간인 지역사회를 교육공간으로 재조명하고 있고 지역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공동체 평생

학습’과 그 맥을 같이 한다.

학교와 지역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학교의 자율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있고, 마을과 함께 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역특색화 교육과정 운영 등, 예를 들어, 혁신교육지구(혹은 행복교육지구)에서는 마을결합형 학교(마을결합형 교육과정 재구성, 마을결합형 학교행사, 마을결합형 동아리, 마을교과서, 마을 탐방 체험활동 등), 주제별 지역사회 배움터와 교육과정의 연계를 통해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학교가 “좁은 울타리”, “외로운 섬” 등의 표현과 같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어 단지 지식을 전수하고 인재 양성 기능만을 담당한다는 인식에서 탈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현대인들이 평생학습을 통해 과도한 경쟁과 소외, 계층 간 갈등에서 겪는 공동체성 상실을 치유하려는 모습들과 다르지 않다.

평생학습이 현대인들의 공동체성 상실의 문제를 푸는 중요한 열쇠가 되어 개인의 일상에 깊이 들어가 삶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자신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신과 타인의 삶을 들여다 보면서 진로(career)를 탐색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학생)를 중심에 두고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사회의 다양한 배움터와 체험터들, 평생학습기관이 모여서 지역의 다양한 문제이 무엇이고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각 주체들의 기대를 공유하고 방법을 함께 찾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②

가까운 곳에서 만나는 '평생학습'



활용하는 고래문화특구 장생포 마을 기반 산업을 비롯해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계한 태화강 울산대공원 시민정원사 과정, 정주의식 및 생태감수성 강화를 위한 생태시민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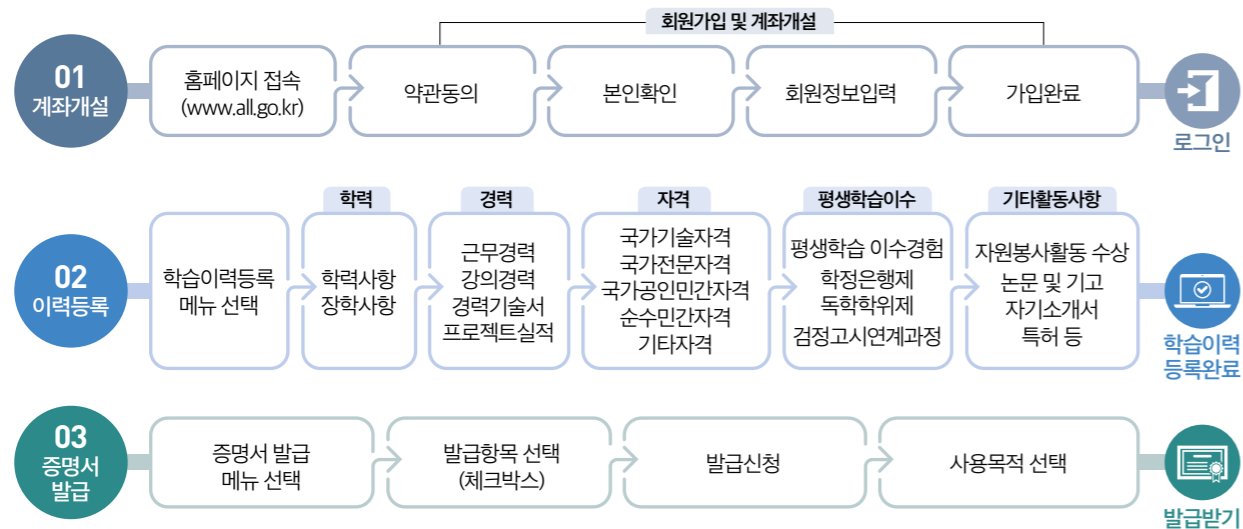
또한, 충남 보령시에서는 내 고장 숨은 달인의 기능계승 프로젝트 '시민재능 플랫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기반 특화 강좌를 운영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평생학습은 가깝게는 내 마을에서, 더 가깝게는 온라인을 통해 배우는 즐거움을 깨닫게 한다. 또한 배움이 학령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이뤄지는 것을 일깨워준다. 누구나, 어디서나 평생학습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애 맞춤형 평생학습 정보를 소개한다.

서울 구로구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대응하여 디지털 비문해자들 대상의 ICT 기초문해 교육을 비롯해 디지털 홍보동아리 '스마트 애디 양성', '4차 산업 STEM 인재 양성 프로젝트' 등 디지털 문화교육을 해오고 있다.

울산 남구에서는 환경분야 전문가를 자유학기제 강사로

평생학습계좌제 이용방법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www.lifelongedu.go.kr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양질의 교육 콘텐츠와 평생학습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서비스를 종합해 제공하는 평생학습 종합 포털이다. 공개교육자료, 시스템 및 제도 간 연계를 통해 온라인 학습, 이력 관리, 학습진단 등 세대별·특성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늘배움'은 시·도 다모아 평생학습 정보망과 연계해 전국 평생학습 기관의 강좌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원하는 지역의 강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히 평생학습에 소외되는 계층을 줄이고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앱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모바일서비스: <http://lifelongedu.go.kr/mbi/man/main.do>). 또한 '늘배움'의 주요 수요자인 노년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용 모드(글자 크기 확대, 항목 등 간소화)가 제공된다.

K-MOOC

www.kmooc.kr



K-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를 말한다. 수강 인원의 제한 없이(Massive), 모든 사람이 수강 가능하며(Open), 웹 기반으로(Online) 미리 정의된 학습목표를 위해 구성된 강좌(Course)이다. K-MOOC에서는 교수-학생간 질의·응답, 토론, 퀴즈, 과제 피드백 등의 학습관리, 학습커뮤니티 운영 등 교수-학습자간, 학습자-학습자간 양방향 학습이 가능하다. K-MOOC는 대학의 우수강좌를 일반에게 공개·공유하여 대학교육을 혁신하는 동시에 고등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기회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2015년 첫 시범서비스가 실시됐다. 2018년 6월 현재 방문자수 622만 명, 수강신청 597천 건수를 기록하며 매머드급으로 성장 중이다.

학점은행제

www.cb.or.kr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학사학위는 전공 및 교양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 전문학사는 전공 및 교양학점을 포함하여 80학점 이상(3년제는 12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고 법적요건을 충족할 경우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학점은행제 학점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 학점인정 대상학교 학습과목 이수, 시간제 등록 학습과목 이수, 자격 취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과정 이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 및 전수교육 이수를 통해 취득할 수 있다.

평생학습계좌제

<http://www.all.go.kr>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온라인 학습계좌에 누적·관리하고, 이를 학력·자격인정과 연계하거나 고용 정보로 활용함으로써, 학습이수 결과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및 활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다. 평생학습계좌제를 이용해 그동안 수강했던 강의, 연수, 자격 취득 사항을 손쉽게 기록할 수 있다. 학습계좌에 등록된 평생학습이력은 학습결과와 누적 및 증빙자료, 학습 진단 및 학습설계 자료, 취창업 자료, 학력 취득 연계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왼쪽 도표 참조>.

국가문해교육센터



<http://le.or.kr>

글을 읽고 쓰지 못하거나 학력이 낮은 성인을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평생학습법 제40조에 따라 성인학습자가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2017년도 지원 현황에 따르면, 학력인정 누적 이수자가 총 8,802명에 이른다. 성인 문해교과서·워크북·교사용 지도서(38종)를 개발해 무상으로 보급하며 문해학습자의 기초생활능력 함양을 위한 생활문해 보조교과서(금융문해교육, 교통안전문해) 등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평생학습사



<https://ledu.nile.or.kr/>

평생학습사란 평생학습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 등 평생학습 관련업무의 전반을 담당하는 현장전문가를 말한다. 평생학습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대학(원), 학점은행기관, 시간제등록대학 등의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일정 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2급·3급 자격을 받고 일정 경력을 갖춘 후에 국가평생학습진흥원(NILE)에서 운영하는 승급과정을 이수하고, 일정 평가절차 통과하면 승급할 수 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



<http://www.parents.go.kr>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학교참여 활동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 교육자료, 온·오프라인 연수과정 등을 제공한다. '학부모On누리', SNS와 블로그 등을 통해 교육현안에 대한 분석, 국내외 교육 정책 동향, 학부모 학교참여 및 자녀교육 정보 등을 볼 수 있다.

독서를 통한 우리아이 인성교육, 부모와 함께하는 밥상머리교육, 부모가 길러주는 창의성, 부모를 위한 행복교육, 우리아이 경제교육, 존중과 배려 소통하는 우리가족 등 다양한 온라인 교육과정이 마련돼 있다.

대학의 평생학습 활성화



<http://univ.nile.or.kr>

선취업 후진학을 활성화하고, 성인학습자 친화적 고등교육 학사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평생학습 단과대학 지원사업 정보와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 정보를 통합·개편해 제공하고 있다. 평생학습 운영모델은 단과대학, 학부, 학과, 컨소시엄 등 각 대학마다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학위과정은 필수 운영한다. 학습자 본인의 상황과 비전에 맞는 모델을 찾아 각 대학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문을 두드려보자.

산업맞춤 단기직무인증과정 매치업



<http://www.matchup.kr/>

4차 산업 분야의 직무능력 향상을 희망하는 대학생, 구직자, 재직자 등을 위한 산업맞춤 단기직무인증 과정으로 해당 분야 대표기업이 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을 인증하는 프로그램이다. 미래유망 산업분야 대표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해당 분야 핵심직무를 발굴·제시하면 이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매치업(Match業)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이들 중 인증평가 합격자에게는 대표기업 명의의 직무능력 인증서를 발급한다. 이를 취업이나 사내 인사제도 등에 활용한다.

학습자는 미래유망 산업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 선택권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기업·산업체는 교육과정 설계 및 교육평가 결과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직무·교육 간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 미래사회의 변화 혁신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 사회적 양극화 문제는 기술·산업 및 고용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직접적으로 일자리의 지형과 직무역량 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 국민의 역량개발에 정부가 나서고 있다.

교육부는 미래사회 변화를 혁신성장 및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이 추구해야 할 비전과 기본방향, 이를 뒷받침하는 추진전략과 주요과제를 담은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범부처와 민간기관·단체를 아우르는 민·관합동추진단에서 직업교육훈련 관계자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전략적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에서 제시한 기본방향과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그림 1 참조>.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의 기본 방향

첫째, 혁신성장을 선도해 나가도록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도전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둘째, 누구나 공정한 역량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을 혁신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셋째, 국가의 투자와 질 관리를 통해 전 생애에 걸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령기 중심에서 전 생애에 걸쳐 직무역량을 개발하는 평생직업교육훈련 중심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교육과정, 교육훈련체제, 소외계층 지원, 직업교육훈련 목표 등도 전환되는 패러다임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추진전략에 따른 주요과제

첫째, 유연하고 통합적인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한다.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나 교원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된 자율학교 지정에 활성화하고, 학점제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융합학습을 지원한다.

또한 다양한 온·오프라인의 교육을 통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K-MOOC에 직업교육훈련 강좌를 신설하고,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며, (가칭)마이크로디그리 등 단기과정을 도입해 나간다. 직업교육과 훈련 간 연계도 강화하고자 평생학습계좌제,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유사 기능을 연계하는 등 유사한 제도와 정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연계를 더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통합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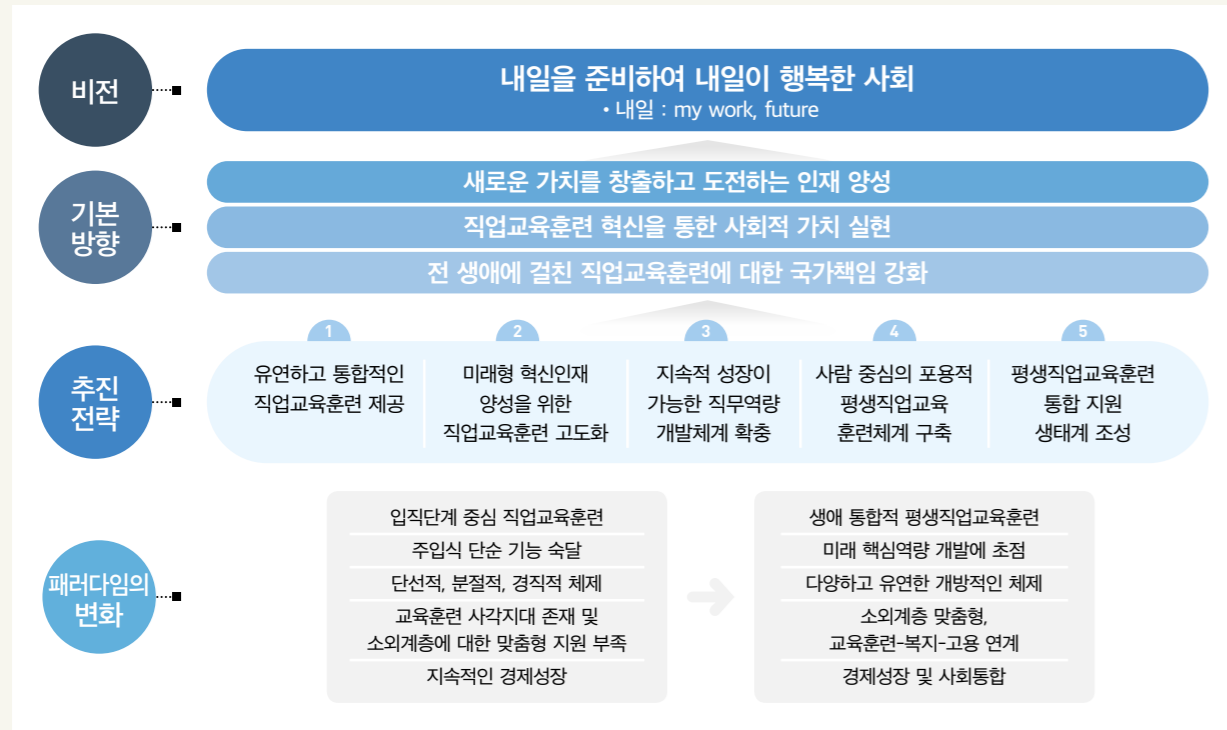
둘째, 미래 유망분야, 성장동력 분야의 혁신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을 고도화한다.

실무중심 교육을 통해 고숙련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선도형 전문대학'을 육성하고 전문대학 교원 자격기준을 전면 개편한다. 이와 함께 우리의 현황에 맞는 고등직업교육 혁신 모델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산업 및 직업구조 변화에 맞추어 학과 및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한다. 아울러 직업계고, 전문대학, 폴리텍 등 교육훈련기관의 학위·비학위 과정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해 나간다.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우수한 현장전문가가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전문교과 사범대 재직자 특별전형을 도입하고,

[그림 1] 평생직업교육훈련의 비전 및 기본방향 체계도



보수교육에 대한 인센티브와 처우개선을 통해 훈련기관의 교사와 강사의 질을 향상시킨다.

셋째, 모든 국민이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직무역량 개발체계를 확충해 나간다.

입직 전 단계부터 진로 및 직업교육을 받고, 입직 이후에도 후학습이나 훈련, 자격취득 및 현장경험을 통해 전문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성장경로를 마련한다.

전문대학 및 대학을 통한 후학습 기회도 확대해나간다. 전문대학 후학습 기능 강화를 지원하고, 국립대의 경우 후학습자 전담과정을 대폭 확대해나간다. 외부시설을 활용한 후학습을 활성화하는 등 후학습 관련 규제도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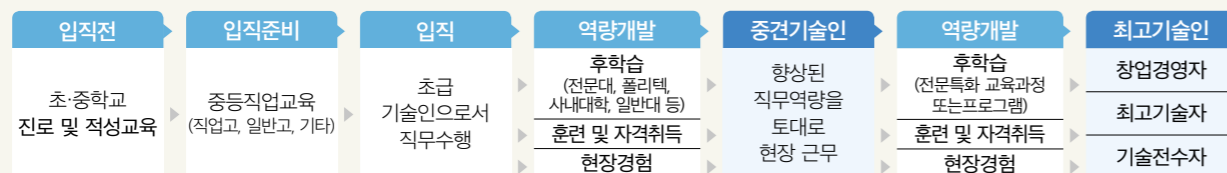
아울러 재직자 역량 개발 기회를 확대한다. 유급휴가훈련제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직자의 학습권 및 학습휴가의 제도화를 검토한다.

앞으로 찾아질 이·전직 수요에 대응하여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의 경우 공공부문을 통해 이·전직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넷째,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포용적인 평생직업교육훈련 체계를 만든다.

교육훈련 참여가 어려운 중소기업 재직자의 역량개발 지원을 위해 공동훈련센터를 적극 활성화하고, 직업교육훈련

[그림 2] 전문직업인 성장경로 모델(예시)



에 따른 관리업무의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기업 훈련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인 대상의 공공 직업교육훈련 인프라를 확대하고,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가칭)'공립형 직업 대안고등학교' 지정·운영도 추진한다.

아울러,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하게 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해 내일배움카드를 확대해 나간다.

다섯째, 평생직업교육훈련을 통합적으로 지원해나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간다.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위해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이인 국가산학협력위원회를 통해 직업교육훈련정책을 연계·조정하고, 지역단위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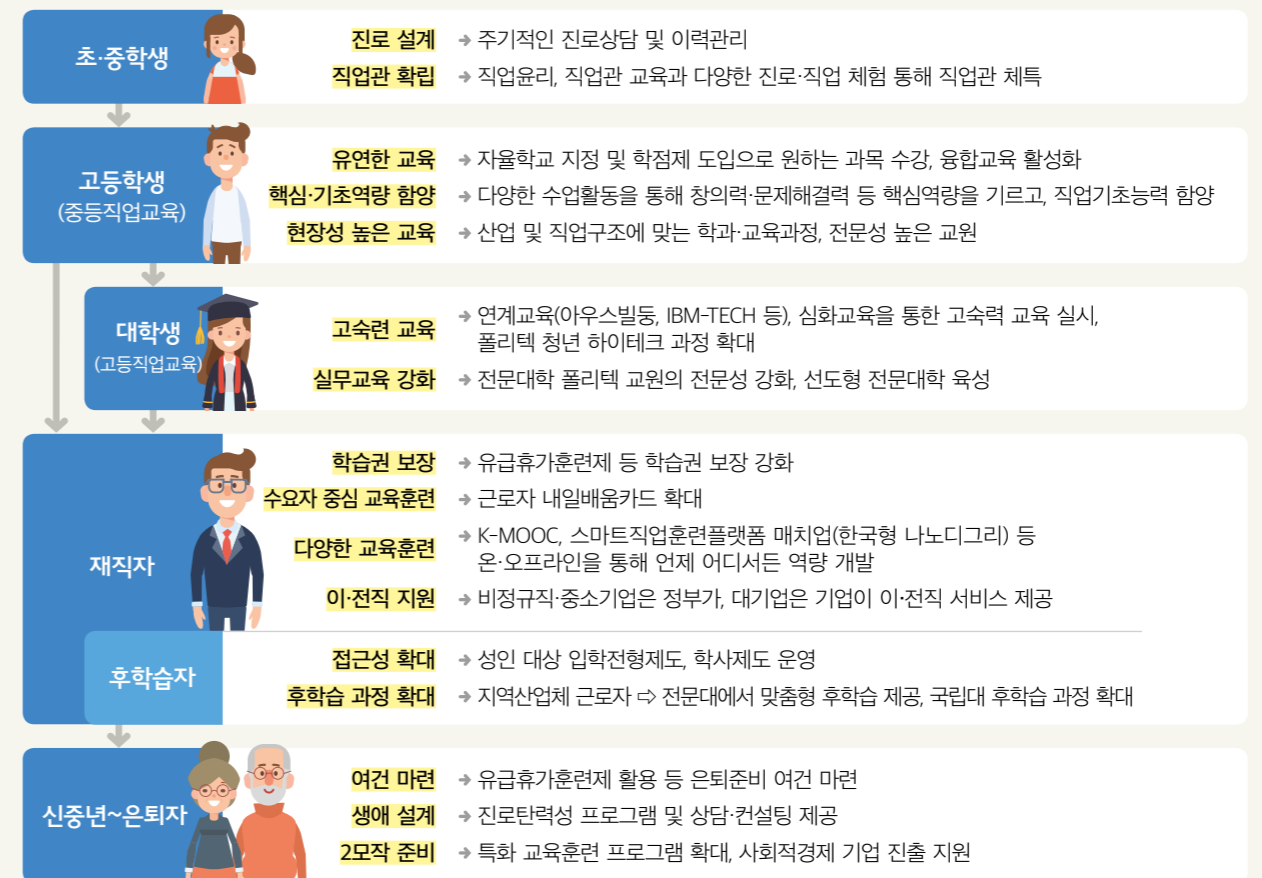
인력수요와 공급을 조사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교육훈련기관의 재구조화를 지원하고 전문대학의 후학습 기능을 강화하며,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능력개발기회를 보장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대대적인 인식 개선을 추진한다. 사회적 캠페인을 실시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산업안전,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제공하여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해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선취업 후학습 계획을 발표하는 등 후속조치를 실시해 나가고 있다. 다른 부처도 현장과의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㉞

[그림 3]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 예상되는 미래의 모습



제주 다흔디배움학교 '납읍초등학교' 마을이 품은 학교, '온 마을이 교실'

납읍초(교장 신금이)는 제주형 자율학교인 아이좋은학교(2009~2014)를 6년간 운영했으며 2015년부터는 다흔디배움학교로 지정되어 4년째 제주형 혁신교육을 이끌고 있다. 다흔디는 '다함께'를 의미하는 제주도 방언으로 다흔디배움학교는 다함께 배움을 이룬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납읍초는 수업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선생님, 마을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마을 주민, 교육에 뜻을 모아 학교의 훌륭한 조력자가 되어준 마을협동조합이 공존하는 마을이 품은 학교, '온 마을이 교실'인 그런 학교다.



1. 6학년 선배가 들려주는 동화책에 풍덩 빠진 1학년 아이들
2. '우리가 만든 에코백을 들고'

전교생이 책 속에 풍덩 빠졌던 '책 축제의 날'

제주 납읍초 1학년 교실, 웅기종기 모인 아이들의 시선이 6학년 양고는 학생이 들려주는 한 권의 책에 꽂혔다. 책장을 넘기던 고은 학생이 "기분이 어때?"라며 소곤소곤 이야기를 건네듯 책을 읽는다. 소심하게 움츠려 있는 김편지가 여러 상황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표현한 앤서니 브라운의 『기분을 말해봐』라는 책이다. 장난감이 다 싫을 만큼 재미없다가 폴짝폴짝 뛰고 싶을 정도로 행복하다가, 호기심이 가득한 눈망울로 뭐든지 궁금하다는 주인공의 여러 감정이 뽐뽐뽐뽐한 눈망울로 책을 바라보는 납읍초 1학년 아이들과 꼭 닮아 있다.

아이들은 '즐거워' '졸려' '기뻐' '힘들어' 등 각자 느끼는 기분을 에코백에 담았다. 선배들은 무엇을 표현해야 할지 난감해 하는 동생들에게 기분을 묻고 왜 그런 기분을 느꼈는지 이야기를 들어주며 솔직한 감정 표현을 이끌어낸다.

또 다른 교실에서는 책 속의 주인공을 클레이로 표현하는 활동이 한창이다. 『정글식당』을 읽었다는 정연지(2학년) 학생은 "정글을 없애고 그 위에 식당을 지었는데, 식당에 풀들이 나기 시작하면서 정글식당이 되었다."며 "표지 속 토끼의 표정이 너무 재미있어서 토끼를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전교생이 책 속에 '풍덩' 빠졌던 10월 26일은 납읍초 '책 축제의 날'. 올해 3년째 운영하는 책 축제는 6학년이 행사를 기획하고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조금 특별한 행사다. 에코백 만들기, 책 읽고 클레이로 주인공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독서골든벨 등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탄생했고, 학생들이 모든 진행을 맡았다. 진수민(6학년)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동생들에게 읽어줄 책을 선정하는 일에서부터 학년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지 친구들과 많은 회의를 거쳐 결정했다."며 "행사를 준비하면서 보람도 많았고 특히 친구들과 협동심을 키울 수 있었다."고 말한다.



배우면서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납읍초는 제주형 자율학교인 아이좋은학교(2009~2014)를 6년간 운영했으며 2015년부터는 다흔디배움학교로 지정되어 4년째 제주형 혁신교육을 이끌고 있다. 다흔디는 '다함께'를 의미하는 제주도 방언으로 다흔디배움학교는 다함께 배움을 이룬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책 축제처럼 학생들의 자발성이 돋보이는 학생 중심 교육활동은 '함께 성장하며 제 빛깔을 찾아가는 교육공동체'를 지향하는 학교의 소중한 결실이기도 하다.

신금이 교장은 "아이들이 밝고 거침이 없는 편"이라며 "교육공동체의 소통을 중시하면서 교사들의 전문성을 키워온 노력의 결실"이라

3. 책 축제의 날 '독서골든벨' 5. 배움이 즐거운 아이들. 만나는 아이들마다 웃음꽃이 피었다. 4. 6. 애월협동조합 '이음' 해금교실과 도서관



5



고 설명한다. 교사, 학생, 학부모 다모임을 통해 소통하려고 애쓰고 있으며, 선생님들은 '늘배움 동아리'를 통해 끊임없이 교원의 전문성을 연마하고 있다.

납읍초가 다혼디배움학교를 운영하면서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수업혁신'이었다. 걸로 드러나는 교육적 성과

보다는 교육의 본질인 '배움'에 한 발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었다.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도 '가르침의 대상'에서 '함께하는 동반자'로 바뀌었다. 수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학생들에게 배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교육과정에 담아냈다. 마지막엔 함께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 연구했다. 교학상장의 의미를 일깨우는 대목이다.

학교는 담임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 학년 선생님들이 모여 수업연구를 정기적으로 해오고 있다.

차지연(연구부장) 교사는 "늘배움 동아리를 통해서 전 학년 교사들이 모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데 따른 문제점이

나 고민을 해소하고 있다."며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 계획 단계에서부터 협의하고, 참관 후에는 개선해야 할 점까지 이야기를 나눈다."고 설명한다. 때문에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점차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신금이 교장은 "제주도 특성상 다혼디배움학교는 소규모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며 "애월읍에 7개의 다혼디배움학교가 있는데, 연합하여 학교 밖 동학년 모임, 학교 밖 연구부장 협의회 등을 운영, 의견을 교환하며 지역특성을 살린 교육을 해나가고 있다."고 말한다.

마을의 자산, 금산공원은 우리의 놀이터

한편, 학교를 둘러싼 자원은 학생들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 단층짜리 교사(교사(橋舍)를 등지고 운동장을 향해 서면, 웅장한 숲이 펼쳐진다. 숲이 아름다워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꼽히는 금산공원이다. 이 공원은 마을에서 조성한 만여 평의 인공림으로 식물의 종류도 많고 천연기념물로 보호받고 있다. 납읍초는 이곳에서 ECHO 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 환경을 주제로 한 교과연계 수업을 진행하는가 하면, 우리 마을 탐구활동을 통해 금산공원의 식물을 배우기도 한다. 금산공원에서 시화전을 열고, 산책하며 자연의 향기에 흠뻑 취하는 경험은 이곳 학생들만의 특권이다. 산책하다 만나는 학생들

의 시화는 뜻밖의 선물이다.

'실비가 새끼를 낳다니 / 아히히! 너무 귀엽다 / 밥을 먹잖아 / 나랑 얘기하는 것 같은 망아지 / 이름은 뭘로 할까? / 아 실아!' (망아지/ 3학년 이나원 작품)

갓 태어난 망아지를 관찰하며 쓴 시를 읊자니 저절로 미소가 차오른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학생 중심의 우수한 교육활동이 맞물리면서 한 때 분교장으로 격하되었던 학교가 지금은 꾸준한 학생 수 증가로 이어져 현재 138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학생 수가 증가한데는 마을의 힘도 크게 작용했다. 신 교장은 "138명 중 납읍에서 나고 자란 아이는 18명으로 나머지는 제주 이주 열풍으로 정착한 경우와 마을 주민들이 조성한 공동주택의 영향"이라고 설명한다. 마을에 학교가 있어야 마을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마을 주민들이 모금을 통해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지어 '금산학교마을'을 건설한 것. 3차례에 걸쳐 공동주택을 완성했으며 55가구가 거주 중이다. 공동주택은 다자녀가구에 우선권이 있으며,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어 학교를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현재 76명의 학생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학교 밖의 또 다른 교실 '애월협동조합'

그밖에도 마을 주민들은 애월협동조합 '이음'을 조성해 학생들의 다양성 교육을 지원하고 나섰다. 안재홍 대표는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좀 더 다양해져야 하는데, 공교육 틀 안에서는 단기간에 변화를 이뤄내기 어렵기에 대안으로 마을교육협동조합을 생각해 봤다."며 "이음을 아이들에게는 놀이터, 어른에게는 소통과 배움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설명한다.

이음의 첫 활동은 지난해 여름방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석면철거 작업으로 여름방학 기간에 납읍초의 방과후 활동이 전면 중단되었다. 학교교육이 전부였던 아이들이기에 학교 측에서 이음에 바이올린과 플룻 수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것. 제대로 된 공간을 갖추지 못했던 이음은 납읍리사무소의 공간을 빌려 첫 수업을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단층 건물을 마련했고, 이후 70여 명의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2층에 도서관을 갖추게 되었다.

학교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오후 3시가 되면 하나둘 책을 읽으러 이음으로 몰려든다. 4시부터는 1층에서 요일별로 방송댄스, 뮤지컬, 가야금, 해금, 바둑, 연극놀이가 진행된다. 늦은 저녁에는 학부모를 위한 기타교실과 마을 주민을 위한 요가수업도 병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우쿨렐레 수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학교와 이음은 보이지 않는 끈처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음에서 해오던 활동이 완성되면 학교에서는 무대를 만들어 발표회를 연다. 신금이 교장은 "이음에서는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개설해 우리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음에 우쿨렐레반이 만들어지면 현재 가르칠 재원이 부족해 학교에서 잠자는 우쿨렐레 20대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도 이음과 긴밀하게 상호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한다.

수업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선생님, 마을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마을 주민, 교육에 뜻을 모아 학교의 훌륭한 조력자가 되어준 애월협동조합이 있는 납읍초등학교. 마을이 품은 학교, '온 마을이 교실'이라는 이야기는 이런 때 하는 말이 아닐까. ㉞



1. 봉사는 모든 교육자의 기본 덕목이라고 말하는 윤수관 지도교사
2. 미술을 지도하는 윤수관 교사와 수업반 아이들

윤수관 부산 대진전자통신고등학교 미술교사 아름다운 붓, 행복한 세상을 그린다

부산 대진전자통신고등학교 윤수관 미술교사는 올해로 20년째 페이스페인팅 봉사지도와 학부모 민화교실을 통해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아이들과 더불어 붓으로 그려가는 아름다운 봉사, 그 행복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본다.

“봉사활동이 단순한 의무감, 혹은 시간 때우기 식의 형식적인 과정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좀 더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고 싶었죠. 페이스페인팅 봉사는 학생들이 재밌게, 즐기면서 봉사도 하고, 전공 교과인 디자인 공부도 더 열심히 해 보자는 취지로 시작하게 됐죠.”

부산 대진전자통신고등학교 미술담당 윤수관 교사가 지도하는 ‘페인팅 아트 봉사단’ 동아리는 2000년 봄, 처음 발족했다. 윤 교사는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학교 인근 유치원도 방문하고, 부산지역 문화체험 현장을 찾아 페이스페인팅이라는 새로운 문화도 전파했다. 당시만 해도 페이스페인팅 봉사활동은 다소 생소한 영역이었다. 대학생 중심의 활동은 존재했지만, 고교생으로 구성된 활동은 대진전자통신고 학생들이 유일했다. 그런 만큼 2002년 월드컵과 부산아시아게임 당시 대진전자통신고 ‘페인팅 아트 봉사단’ 활동은 부산 지역에서 단연 화제가 됐다. 경기가 있을 때면 학생들은 경기장 인근에 페이스페인팅 부스를 열어 관람객들의 응원 열기와 호응을 이끌어내곤 했다.

“선생님, 봉사활동 또 언제 해요?”

동아리 발족 후, 윤 교사가 지도교사로서 무엇보다 반가웠던 건 아이들의 변화였다. 이 재능기부 활동을 하면서 학

생들은 나만이 아닌, 타인과 함께 나누는 삶에 대해 차츰 눈을 떴다. 처음 동아리를 만들 때만 해도 아이들에게 봉사는 낯설고, 귀찮은 것이었다. 하지만 머지않아 아이들은 선생님께 “페이스페인팅 봉사 언제 다시 가느냐?”면서 때를 쓰곤 했다.

“1998년 이곳에 부임하면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생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프로그램이 필요했습니다. 저의 전공 분야인 디자인과 신입생부터 무언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학생들의 특기와 장기를 십분 살리는 영역으로 택하게 됐죠.”

2000년 초, 페이스페인팅 봉사활동은 그렇게 시작이 됐다. 학생들은 기장 해변항 멸치축제, 부산 바다축제 등 부산 지역 대표 축제에서도 갈고닦은 미술 솜씨를 뽐내곤 했다. 페인팅 아트 봉사단은 창단 2년 만에 그해 문화관광부가 주최한 ‘청소년 자원봉사대축제’에서 대상인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 그해 최우수 동아리에도 선정됐다. 이 수상이 계기가 되면서 동아리 학생들은 중국, 홍콩, 타이베이로 이어지는 해외봉사 연수도 다녀올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봉사활동이 대내외에 널리 알려지면서 대진전자통신고는 2004년 ‘아름다운 학교’에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청소년 문화존 활동인 청소년 어울마당 활동으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우수동아리로 선정됐다. 무엇보다 페인팅 아트 동아리 활동은 부산지역 청소년의 봉사활동을 이끄는 롤 모델이자 선구자였다.

페인팅 아트 봉사단 활동은 학생들의 취업과 진로에도 큰 도움이 됐다. 대학진학을 사회복지학과로 정해 대학에서도 봉사를 이어간 제자가 있는가 하면, 대기업 취업 면접에서도 봉사활동의 이력을 소개해 당당히 합격한 학생도 있었다. 이와 같은 윤 교사의 봉사활동 지도노하우는 2011년 12월, EBS에서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붓으로 그려가는 아름다운 세상> 다큐멘터리로도 방영됐다.

“학생들의 진로지도 측면

에서도 봉사는 효과적이지요.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관심분야에 자신감을 가지고 진로를 확정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또 봉사단 해외 문화체험 연수를 통해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갖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부모 민화교실, 그리고 샤프론봉사단

매주 화·금요일 오후, 대진전자통신고 미술실에서는 또 하나의 봉사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봉사와 희생정신은 모든 교육자의 기본 덕목”이라고 말하는 윤 교사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민화그리기 미술교실’이다. 이 미술수업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도 개방된다. 수강료는 물론 무료다. 매주 열 명 내외의 학부모가 빠지지 않고 이 수업에 참여한다. 이 교실에서 민화를 배운 학부모 중에서는 화조도, 산수도 등으로 대한민국미술전람회, 국제종합예술대전 민화 부문에서 특선 및 입선하면서 현재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오는 12월에는 ‘제5회 대진학부모 지역주민 민화·공필화전(展)’도 연다. 취재 당일, 이곳 미술실에서 만난 수강생 박금례 씨는 “민화를 배우면서 주부와 엄마로서만이 아닌,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된 것 같다”면서 흡족해했다. 3학년생 자녀가 있다는 엄명화 씨 역시 “3년째 민화를 그리고, 전시회에도 참가하면서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며 감사해했다. 대부분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의 학부모들이지만, 그림을 배우는 수업시간 만큼은 마치 학창시절 미술시간으로 되돌아간 듯 모두 마냥 행복해한다.

“그림 수업을 통해 어머니들이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저 역시 뿌듯하지요. 그런데 저로서는 이 <민화 교실>이 더욱더 가치 있는 건 이 시간을 통해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에 관해 격의 없는 정보를 나누고, 또 공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부모들과의 소통 채널이 학교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어 왔고요.”

이 미술교실 학부모들은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이다. 현재 학교의 명예교사가 되어 학부모



- 3. 매년 민화교실 학부모들과 함께 여는 전시회
- 4. 학부모 민화교실
- 5. 6. 진로지도로 봉사가 효과적이라고 말하는 윤 교사
- 7. 2000년부터 페이스페인팅으로 봉사해 나선 학생들



샤프론봉사단을 이끌고 있는 주인공도 바로 이들이다. 샤프론봉사단은 자녀들과 함께 온천 천 살리기 환경보호 활동, 복지관 방문, 효문화 캠페인,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 등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다. 샤프론봉사단원 변정희 씨는 “한 달에 서너 차례 아이와 함께 봉사도 하고, 밤길을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 사이 아이의 달라진 배려심이 보이게 되더라”며 자랑했다.

교육현장과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봉사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고 말해 줍니다.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사는 삶에 봉사는 어쩌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지요. 동아리 활동을 통해 봉사활동을 경험했던 모든 학생들이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는 사실을 돌이켜보면, 지난 20여 년 봉사활동 지도교사로서 더욱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윤 교사가 현재 그리고 있는 봉사활동의 큰 그림은 ‘교사·학부모·학생 등 교육현장과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봉사’다. 특히, 2019년부터는 (사)한국시민자원봉사회 교사단 회장을 다시 맡으면서 부산지역 학부모샤프론봉사단 가입학교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윤 교사는 2010년부터 3년 동안 이 봉사단체의 교사단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또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론티어 청소년봉사단에 이어 내년에는 초등학교생이 참여하는 ‘챌린저 봉사단’도 설립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 윤 교사는 (사)한국시민자원봉사회에서 그간의 활동과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내년에는 그동안 중단됐던 교육포럼도 부활시켜 봉사활동의 전문화와 체계화도 도모해 나갈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봉사를 융합한 프로그램 모형도 적극 개발해 각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구요.”

내년에 운영할 봉사 프로그램들을 설계하고, 준비하느라 윤 교사는 요즘 무척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그 분주한 일정 속에는 12월에 있을 민화교실 학부모들의 민화·공필화전(展)도 포함돼 있다. 남종화의 대가 남농 허건 화백, 윤정 김흥중 화백을 사사한 윤수관 미술교사는 지금까지 5회의 개인전을 비롯해 2인전과 3인전, 그룹전과 초대전 등 총 220여 회의 전시회에 참여했다. ㉔

인천 선인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사례’ 무학년제 진로 중심 공동교육과정, 꿈에 한 발 더 가깝게…

교육부는 올해부터 학생들의 진로·학업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하면서 학점제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고교 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는 전국에서 105개 학교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인천 선인고등학교(교장 이덕범)도 그중 한 곳. 선인고는 올해 2년째 정규과목을 좀 더 세분화하고 보완한 진로 중심의 꿈두레 공동교육과정을 편성하여 무학년제로 24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선인고의 고교학점제를 들여다봤다.

“팔찌를 어떻게 광고해야 친구들에게 가장 잘 알릴 수 있고, 또 판매가 잘 이뤄질지 지금부터 아이디어를 잘 모아 보자. 오늘 회의에서 광고 콘셉트도 정하고,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물품 주문 요청서도 작성해야 하고…”

8교시 ‘창의경영’ 시간. ‘라운하제’(학생들이 직접 지은 순우리말 기업명으로 ‘즐거운 내일’이라는 뜻이다) 이동은(선인고 2학년) CEO가 주재하는 회의가 막 시작됐다. 이날 회의 주제는 라운하제에서 직접 주문 제작, 판매하게 될 팔찌의 홍보 제작물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 라운하제 팀은 남녀 각각 3명의 학생으로 구성됐다. 여학생은 이웃한 인화여고에서 이 창의경영 과목을 선택해 참여한 학생들.

밴드형에서 거점형, 방학 중 집중이수과목까지

이 ‘창의경영’ 수업에는 인화여고에서 신청한 열한 명의 학생도 참가하고 있다. 공나연(인화여고 1학년) 학생은 “기업 현장에 계신 전문가 선생님들이 직접 지도해주실 때는 실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는 수업”이라고 소개했다.

또 다른 8교시 수업인 ‘사회문제탐구’ 교실에서 만난 이민희(인화여고 2학년) 학생은 “진로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하다 작년에 들었던 ‘현대사회탐구’ 과목의 만족도가 높아 다시 수강신청을 하게 됐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화학실험’ 수업에서는 10원짜리 동전을 이용한, 구리와 아연의 합금 실험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실험에 열중하던 박서진(인화



1. 2. 3. 인근의 인화여고와 함께 진행하는 선인고의 ‘밴드형’ 공동교육과정으로 미래신소재공학 ‘화학실험’, 우주천문학 지구과학실험, 창의경영 ‘창업과 경영’ 수업 모습

이동은 CEO는 기자에게 “이번에 플리마켓 팔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인화여고 구성원들로부터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많이 쏟아져 나왔다.”고 귀띔했다. 이동은 학생은 또 “주문제작한 100개의 팔찌는 판매수익금을 전액 기부하기로 한 만큼 완판할 자신이 있다.”면서 웃었다.

여고 2학년) 학생은 기자에게 “대학은 화학과로 진학, 화장품회사 연구원이 되는 게 꿈”이라며 속삭이듯 말했다. 또 다른 교실의 ‘문학과 매체’ 과목은 여학생 신청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총 8명으로 진행된 ‘지구과학실험’ 교실에서는 선인고 남학생들의 신청률이 단연 높았다.



4. 5. 10원짜리 동전을 이용하여 구리와 아연의 합금 실험을 하고 있는 학생들. 선인고는 남학교지만 공동교육과정이 열리는 이 시간에는 인근의 인화여고 1~2학년생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6. 선인고에서 자체 제작한 공동교육과정 교재

밴드형·거점형(거점형 수업은 선인고를 비롯해 인천시 29개 고교에서 진행되며, 인천교육청에서 수강신청을 대행한다. 선인고에는 4개 과학실험 과목과 바리스타 과정 등 5개 과목이 개설됐다.) 공동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최은희 부장교사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모두 소화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편성된 밴드형 공동교육과정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집중 과정으로 운영되며, 과정 이수 중에 진로 및 적성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도중에 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 개개인의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고 소개했다. 1학기엔 34개 과목, 2학기 현재는 1~2학년에서 24개 과목이 운영 중이다. 최 부장교사는 “컴퓨터 활용, 영상제작과 같이 전문적인 기자재 활용이나 수업의 몰입도를 한층 끌어올려야 하는 과목의 경우 밴드형·거점형 공동교육과정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러한 과목의 수강을 원하는 학생들을 대

**올해 2년차를 맞은
공동교육과정은 진로 중심으로
편성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 2년차를 맞은 이 공동교육과정은 학력 위주 과목에서 진로 중심과목으로 편성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지난 첫 해, 학생들로부터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과목도 바로 진로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경찰행정, 컴퓨터 정보통신 과정’

등이었다. 또 선인고가 과학중점학교로서 이공계의 진로 활성화와 연계한 공학과정이 집중 편성된 것도 특징 중 하나다. 체육탐구, 영화제작실습, 연극의 이해, 스포츠캐논 등 예술과 체육교과를 중점 편성한 것도 도드라지는 대목이다.

더욱 중요해진 학습 수요자의 과목 선택권

교육부는 올해부터 학생들의 진로·학업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하면서 학점제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고교 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는 전국에서 105개 학교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인천 선인고등학교(교장 이덕범)도 그중 한 곳. 선인고의 고교학점제 연구 교육과정은 크게 3가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첫째, 학습 수요자가 원하는 개인 맞춤형 교육. 둘째, 고교-대학 연계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으로 학생들이 적성, 흥미, 능력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진로와 진학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이다. 셋째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야 할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민주적인 사회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 등으로 각각 구성돼 있다.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1학년의 경우, 학교 지정 과목 외에 체육예술(음악, 미술, 연극), 탐구교과(5개 과

목), 생활교양(7개 과목) 교과군에 15개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2~3학년은 학생의 진로희망을 고려하여 제2외국어 과목 개설 및 탐구교과의 심화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학점제 시행에서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중요해졌다. 이에 대해 인천지역 온라인형(온라인 과정은 서해 5도 등 특수지역 학생이 주 대상인데, 평가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온·오프라인 수업이 병행 시행되고 있다. 현재 인천에서 선인고를 비롯해 2개 학교가 거점학교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공동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김지연 교사는 “현재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연구·시행되고 있지만,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 및 진학에 대한 로드맵을 그려나가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힘이 길러지기까지는 학습 수요자인 학생들에게도 물리적으로 꽤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교사들의 지속적이고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선인고는 현재 한기선 교감의 주도 아래 ‘교육과정 지도팀’을 별도로 구성, 학생 개인별로 진로 및 학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진로코칭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학생 개개인의 이수경로를 진로성장 이력으로 인정 관리하기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학생 선택과목 안내>, <진로·학업 계획서> 등 다양한 경로의 상담 자료들도 개발·연구 중이다.

내년부터 선진형 교과교실제 시행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또 다른 이슈는 학생들의 성취

기준과 평가문제. 연구학교 1년차, 선인고의 예술 일반 과목을 예로 들면, 현재 3단계인 절대평가제가 적용된다. 특히 지필평가는 1회 이하로 지양하되, 과정중심의 수행평가를 80% 수준까지 적용하는 교과도 있다.



연구학교 2년차인 2019년부터 선인고는 선진형 교과교실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를 위해 각 교과마다 특화된 교실 환경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 따라서 11월부터 교실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간다. 최은희 부장교사는 “집중이수 과목에서는 인근 특성화고 등 외부강사에 의해 직접 기자재 동원이 가능하지만, 교과교실제가 시행되면 전면적으로 내실 있는 교실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기선 교감은 또한 학점제 시행에 따른 선인고의 교·강사 수급과 관련 “선인고는 인근 인화여고 같은 일반계고 뿐만 아니라, 5킬로미터 이내에 전자마이스터고, 인천비즈니스고 등의 4개의 특성화고, 중학교 3개교 등 총 9개의 중·고등학교가 단과대학 캠퍼스 형태로 자리 잡고 있어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 수급에 최적의 조건”이라며, “현재 교과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본교 교사와 인근 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교과학점제를 위한 공동교육과정 수업을 운영할 다양한 인력풀을 갖춰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②

INTERVIEW



이상경 학생 선인고 2학년

“로봇 기초 과목 선택, 진로가 더 확실해졌어요!”

꿈두레 공동교육과정에서 ‘로봇의 기초’ 과목을 선택했는데, 수업을 듣고 전자정보 관련 학과로 대학 진학을 결정해야겠다는 꿈이 더 확고해졌어요. 이전의 수업에서는 진로를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수업시간에 많은 경험을 할 수 없어서 아쉬기도 했지만, 이번에 선택한 수업에서는 여러 가지 체험을 미리 해 볼 수 있어서 좋았죠. 다음 학기에도 로봇 관련 심화과정이 개설되면, 또 선택할 겁니다. 물리실험도 선택했었는데, 다음에는 물리와 수학을 접목한 과목도 추가로 개설되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우리의, 우리에게 의한, 우리를 위한 배움

경기 의정부 옛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건물에 하나둘 아이들이 모여든다. 지난 11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 이날은 '10세기 축제'가 열리는 날. 이른바 10대들이 만든 세상 지금 여기의 준말이다. 입구에 들어서니 '이장'이라 쓰인 모자를 쓰고 분주히 움직이는 스탭들이 있다. 학생자치회 임원들로 이날 하루, 축제가 열리는

'대한민국 달라도 함께하면 좋으리'를 책임지는 '이장'들이란다.

2016년 9월 구 청사의 이전으로 학생자치배움터가 된 이곳은 경기도교육청 몽실(夢實)학교다. 스스로 꿈[夢]을 실현[實]한다는 뜻으로 청사 옛 건물을 리모델링해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배움터로 거듭났다. 2018년을 두 달여 앞둔 시간, 몽실학교 아이들은 그간 자신들이 해 온 프로젝트 학습의 결과물을 청소년 자치마음으로 꾸며 공개했다.



1

1. 정책마켓에서 버스 이용 편의에 대한 생활정책을 선보인 학생 부스
2. 몽실학교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담아 책을 출판한 '꿈이룸출판'
3. 민주주의 릴레이 강연회를 펼친 '민들레 II'



2

“정책을 팝니다!”

마을 지도를 따라 3층에 오르니 마켓이 열렸다. 떠들썩한 마을 장터를 연상케 하는 이곳에서 사고파는 물건은 보이지 않는다. 이들의 거래 품목은 지난 3개월간 아이들이 고민 끝에 내놓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정책' 안건. 정책을 홍보하는 아이들의 달변에 구매자가 된 시·도의회 의원들도 혀를 내두른다. 정책마켓에 초청된 경기도의원들과 시의원, 교육기관장, 학부모 등이 구매자로 나섰다.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학생들이 찾아냈네요. 벌써 두 번째 정책 구매입니다. 의원을 시켜야겠어요(웃음).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수업이 학생들을 이렇게 만듭니다.”

최경자 경기도의원은 '통학로 안전권 보장을 위한 조례/법률개정안'을 구매했다. 그리고 “아동들 학교 가는 길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며 조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한다.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은 '노동 의무교육' 구매자로 나섰다. “생활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많다. 기성세대들의 착취를 근절하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청소년 조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펼쳐나가겠다.”고 했다.

일찍부터 판매 실적을 올린 김건호(17) 군은 몽실학교 유자청 소속이다. 17~19세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유유자적 청소년'이라는 이름

으로 화~금 주 4회 스스로 만든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예를 들면, 화요일에 모여 일주일의 활동 계획을 짜는데, 올 8월에는 창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옥상영화제를 여는 한편, 특정 단



어로 글쓰기, 페미니즘 페스티벌 등을 진행했다. 어느 날 노동에 대해 쓴 글을 읽던 김 군은 “알바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노동의 권리를 침해당해도 알지 못한다.”며 “초등학교 6개월, 중학교 1년, 고등학교 1년 동안 노동에 대한 의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김 군은 지난 3개월간 근로기준법, 노동3권 및 노동조합 등의 법률과 자료에서 노동교육 규정을 찾고, 이를 위한 소요 예산과 정책 추진으로 인한 해결 과제, 기대효과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소개했다.

학생 주도 프로젝트로 '쑥쑥' 성장

총 27건의 정책 안전에는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해 보자는 의지가 엿보인다. 성, 인종, 노동, 환경, 평화, 아동 등을 폭넓게 아우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소요 예산과 해결과제, 기대 효과 등을 세밀하게 짰다. 제3의 성을 위한 성중립 화장실이나 성평등 교육 의무화, 난민을 위한 교육권과 의료권 보장, 비정규직 쉼터, 공병보증금 확대정책과 남북 청소년 교류를 위한 '평화학교'에 이르기까지. 지난해 아이들 생활에 초점이 맞춰졌던 제1회 때와는 달리 우리와 공동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진 게 달라진 점이다.

'자치마을' 곳곳에는 그간 아이들 성장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더해 움 역사팀은 매주 한 번씩 만나 역사에 대해 배우고 토론했다. 1년 전부터 길잡이교사로 함께 한 이건주 효자고 교사(역사 전공)는 “아이들



의 힘을 느꼈다. 아이들이 주도 하니 더 많이 더 잘 배울 수 있었다.”고 말한다.

2층 예술의 전당 코너에는 마이책원투, 낙서전시회, 공간 디자인 3팀이 함께 제주 4·3

사건을 소재로 전시를 꾸몄다. 4·3 희생자 분포 지도를 그리고, 인근 지역 학생들이 그린 제주 4·3 그림을 하나로 모았다. 관람객과 함께 당시를 떠올리는 심벌로 동백꽃을 만들어 보는 참여코너도 한쪽에 마련했다. 공간디자인팀 정연아(17, 효자고 1학년) 양은 “제주 4·3을 시작으로 민주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난 사건이라 입구를 시작의 의미를 담아 동굴처럼 만들었다.”며 “함께 책을 읽고 강연을 들으면서 ‘기억 투쟁’이란 말이 와닿아 전시 제목으로 정했다.”고 말한다.

공부하기 싫은 사람도 재미있게 공부하자며 중·고생들이 모인 민들레Ⅱ. 함께 「택시운전사」 영화를 보고 민주주의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는 이들은 3·1 운동부터 촛불집회에 이르는 역사적 사건을 조명하고 언론사별로 어떤 시점으로 사건을 바라보았는지 분석해 릴레이 강연회를 열었다. 길잡이교사 정성희 씨는 “학부모로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나도 배운다.”며 뿌듯해한다.

학생자치배움 모델로 우뚝... 전국으로 확산 중

2014년 마을학교 ‘꿈이름배움터’로 출발한 몽실학교는 경기도교육청 꿈의학교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꿈이름배움터’를 거쳐 학생 중심

의 교육공간으로 거듭났다. 총 3층 규모의 공간에는 영화관, 노래방, 음합실, 연습실 외에도 사교력실과 청소년방송국, 영셰프실, 목공방, 정보소통방, 씬터 등 총 17개실을 갖추고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교육 활동은 크게 네 축으로 이뤄지는데, 학생 주도 프로젝트 과정과 학교 교육과정 연계 체험형 교육과정, 학교 밖 배움터 과정, 학생 주도 교육 확산을 위한 다양한 연수와 네트워크가 운영된다.

가장 핵심적인 활동인 학생주도 프로젝트 과정은 초5~고3 학생들이 5~20명 정도의 팀을 꾸려 프로젝트를 연간 60~80시간 수행하는 과정이다. 마을을 알고 바꾸자는 마을 프로젝트, 창업과 연계한 챌린지 프로젝트, 고등학생들이 공학, 의학, 인문, 환경과학 등 대학 예비 전공과정으로 운영되는 더혜움 프로젝트 등이 이뤄진다. 특히, 올해는 인권, 전래놀이, 생태, 독서, 역사의 5개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초등학교 대상 등지 프로젝트 과정을 개설해 운영했다. 이 프로젝트 역시 소주제와 방식 등 모든 결정은 학생 주도로 이뤄진다.

지난해 진행된 프로젝트는 48개. 학교를 오가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다 유기동물 보호 캠페인을



4. 6. 몽실학교 '학교교육과정 연계 체험형 진로직업교육 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의 목공(위)과 방송 실습(아래) 장면
5. 2017년 어린이날 행사에 몽실학교에서 활동하는 중고생, 학교 밖 학생들이 지역의 초·중·고생, 유치원 아이들을 위한 행사를 진행했다.



<p>학생 주도 프로젝트 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챌린지 프로젝트 ▶ 마을 프로젝트 ▶ 더혜움 프로젝트 ▶ 등지 프로젝트 ▶ 공동체 활동 	<p>학교 교육과정 연계 체험형 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 체험학습 ▶ 대학생 진로 사람책 '몽실 꿈나래' 	<p>학교 밖 배움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몽실학교(지역주민) 연수 ▶ 마을교사 양성과정 ▶ 마을대학(두리혜움) ▶ 학교 밖 청소년(유자청) 	<p>학생 주도 교육 확산을 위한 연수 및 네트워크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주도 교육 교원 연수 ▶ 길잡이 교사 역량강화 연수 ▶ 청소년 자치 배움터 연대 워크숍 ▶ 지역별 몽실학교 설립, 운영 지원 컨설팅
--	--	--	--

기획한 ‘유기동물LOVE’, 몽실학교 옥상에서 밭을 가꾸며 벌과 사람이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 ‘도시양봉’ 등 사진, 연극, 여행, 게임, 춤, 노래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특히,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주목받고 있는 더혜움 프로젝트는 동물 실험과 동물복지, 청년 취업난에 대한 해결방안 연구 등을 통해 보고서를 발간하기까지 깊은 탐구를 이어가 만족도가 높다. 이 외에도 정책마켓 등 연합 활동을 통한 참여 프로젝트인 공동체 활동이 이뤄진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과정인 진로 체험학습과 대학생 진로사람책은 학생만족도가 90%를 웃돌 정도로 호응이 높다. 지역 내 경찰, 소방 등 교육자원을 하나로 연결하며, 연간 교육기부 자원봉사자 등 208명 이상이 참여하는 마을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학교 밖 배움터 과정의 대표적인 활동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위한 유자청 활동과 마을대학, 몽실학부모 연수, 마을교사 양성

과정 등으로 이를 통해 배움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2016년 개관 후 현재까지 다녀간 이는 11만여 명. 몽실학교의 사례를 배우기 위해 방문한 인원만 4,600여 명을 넘어설 정도로 이곳은 이제 학생 자치배움을 선도하고 있다. 김해, 세종, 익산, 전주 등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제2의 몽실학교형 학생자치배움터’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전국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정현 경기도교육청 장학관은 “몽실학교는 교육에서 학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학생들이 가진 배움의 본성을 회복시켰다.”며 “유휴시설이나 폐교 등의 활용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②

청소년 정책마켓



“노동 교육 의무화가 필요해요!”

“노동에 대한 글을 읽다가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학생에서 갑작스럽게 성인 노동자가 되었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노동의 권리를 침해당해도 알지 못해요 의무교육을 통해 앞으로 청소년이 고용주가 되더라도 지켜줬으면 해요.”



“난민 일자리 센터를 만들어 주세요”

민자영 “난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정책 제안을 위해 자료를 조사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하나가 되는 세상을 위해 인식 개선이 필요해요”

김이주 “국제기구 종사자가 꿈입니다. 교내 정치소학회 활동을 통해 난민에 대한 고민하면서 13명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조례를 직접 써 봤어요. 소수 예산도 책정해 봤고요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앞섰지만, 지금은 뿌듯하고 기쁩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진짜’ 울타리가 필요해요!”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한데, 지속가능한 교육으로 안전 울타리를 만들어야 해요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교육, 교과 신설도 필요하고요 교과서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는데,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면 어떨까요? 앞으로 학교폭력으로 자살하거나 상처를 받는 친구들이 없었으면 해요”



전남영상미디어교사모임 작아도 괜찮은, 영화로 만나는 동심



상제를 주관하고 있다. 처음에는 영화제작에 대해 배울 곳이 마땅치가 않아 방학이면 서울로, 경기도 양수리로 영화촬영장을 쫓아다니기도 했다. 배우 은 영화제작법을 서로 공유하며 졸업식 영상도 만들고 수업시간에도 활용했다. 축적된 노하우를 전파하기 위해 연수를 개설하여 다른 교사들과 나누었다. 그 결과 전남 곳곳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들이 제작되고 있다.

아이들은 영화제작과 영상제를 통해 다른 사람과 보다 의미 있게 소통하는 방법과 능동적으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는 믿음, 함께 공동작업을 하는 즐거움, 스스로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 다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공감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

전남영상미디어교사모임은 학생들이 주인이 되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을 위해 지금까지의 다양한 차원의 교육 문제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교사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영화 속 주인공인 아이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주인공이 되어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그게 바로 전남영상미디어교사모임이 만드는 영화 속에서 항상 아이들이 주인공인 이유다.

모임에서 제작한 단편영화는 전문적인 연기자들과 스태프가 꾸린 상업영화가 아니기에 미숙할 수 있지만 학생들의 삶이 그려진 살아있는 영화다. 여름 폭염 속에서도 15~20분 분량의 영화제작을 위해 오전 8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열정적으로 촬영에 임했다. 때론 자전거가 잘 안 굴러간다고 그만두려는 아이를 설득하여 영화에 몰입하게 하고 영화를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지만 영상 속에 우리 아이들의 희망을 담아 세상에 보여주자는 우리들의 열정과 책임감이 있기에 앞으로도 영화제작은 계속될 것이다.

2005년부터 시작, 아이들 이야기를 영화로

이들은 2005년 전남지역 초등학교와 유치원 교사들이 교실에서 아이들과 만든 영상을 서로 공유하며 시작되었다. 그것이 이어져 2013년부터는 좀 더 의미 있는 영화를 제작하자는데 마음이 모아져 4편의 영화를 만들었고, 올해로 7번째 순천스쿨영

아이들과 함께하는 영화제작은 아이들이 영화를 완성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삶이 연결된 성장과정이다.

전남영상미디어교사모임은 학교 안에서 학생들과 삶을 함께하며 교육 문제를 온몸으로 느끼는 교사들이 교실 속 꿈과 기쁨, 슬픔과 갈등, 힘을 담은 영상으로 세상과 소통하려 한다. 올해까지 제작된 영화는 「작아도 괜찮아」 외 3편, 7회째 맞이하는 전남의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하는 영상 축제인 ‘순천스쿨영상제’를 주관하고 있다.



2014년 作 「개천의 용」

www.youtube.com/watch?v=ViZ5LKcgMeo

시골 작은 학교로 전학 온 준우. 준우는 부모가 이혼을 하고 할머니에게 맡겨진 아이이다. 전학 온 학교에서는 멀리뛰기 학교대표를 뽑는 시합을 벌인다. 엄마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몰라주는 아이들이 준우와 멀리뛰기 시합경쟁을 하면서 준우의 마음을 알게 되고 친한 친구가 된다.



2015년 作 「순천만 아이들」

www.youtube.com/watch?v=EOlyywy2WxA

작은 벌레를 좋아하는 민들이. 민들이의 선생님은 과학전람회 작품을 내기 위해 아이들에게 갯벌생물들을 잡아오라고 한다. 선생님은 아이들이 채집해 온 갯벌생물들로 학교에 갯벌모형을 만든다. 민들이는 그런 갯벌모형에서 갯벌생물들이 죽을까봐 걱정된다.



2016년 作 「이 녀석들」

www.youtube.com/watch?v=kPvRaPWkODg

아이들이 자기들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서툴지만 자기들의 방식으로 소통하고 화해하면서 해결해가는 과정을 담은 영화다. 교실, 아이들 머리에서 이가 발견되기 시작한다. 이 녀석들 때문에 수학여행이 취소될 위기를 아이들이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간다.



2018년 作 「작아도 괜찮아」

순천스쿨영상제 이후 JTBC 소설스토리에서 상영 예정

올해 제작한 영화 「작아도 괜찮아」는 교육청 통·폐합 대상교인 순천월등초등학교를 배경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민들이 학교를 살려보자는 데 맘이 모아지면서 2018년에는 1학년 신입생이 8명에 이른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라는 이야기를 담았다.

매년 스쿨영상 축제의 장 마련... 올해 작은 학교 이야기 담다

전남영상미디어교사모임에서는 영화제작 외에도 독립영화감독과 함께하는 영화제작 연수, 편집과 음향, 조명 등 전문가를 초청한 연수를 받고 그 기술을 서로 나누며 아이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제작에 힘쓰고 있다. 영화 주제가와 배경음악을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든다. 영화 시나리오의 아이들의 삶을 담는다. 영화 포스터, 소품 등을 학생들과 같이 고민한다.

7회째 맞이하는 순천스쿨영상제는 영상미디어 체험활동과 초청작 및 공모영상 상영으로 전남의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영상 발표 및 영상 축제의 장이다. 올해도 영상제 준비로 전남영상미

디교사모임은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영상은 만든 이의 눈으로 보는 세상을 전달하며 흐트러져 있는 진실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명확하게 해준다. 영상을 접한 사람들이 현실에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 공감하며 마음을 움직인다. 이 감동은 모든 것이 변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 그것이 전남영상미디어교사모임에서 영상을 하는 이유다.

전남영상미디어교사모임에서 제작하게 될 2019년 아이들의 살아있는 이야기가 벌써 궁금해진다. ㉠

“ 글. 신현테 명예기자
학생독립운동의 날,
11월 3일을 기억하다



‘학생이 지켜온 정의, 그 위대한 역사의 시작’을 주제로 11월 3일 제89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이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문화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각계 대표와 독립유공자, 유족, 학생 등 3,000여 명이 참석했다. ‘학생이 주인공’이라는 행사 기조 속에서 기념식 진행은 광주제일고 2학년 이우진 군과 전남여고 2학년 노별 양이 맡았다. 광주 학생독립운동을 주도했던 학교의 후배들이다.

기념식은 식전행사로 학생들의 합창과 부채춤으로 서막을 올렸다. 이어서 국민의례와 재현극 형태의 기념공연과 당시 사용되었던 ‘식민지 노예 교육을 철폐하라’는 격문을 광주 지역 고등학생들이 직접 낭독했다. 기념공연은 음악과 영상을 곁들인 연극 형식으로 운동 전개과정을 재현했다. 기념공연에는 학생독립운동을 주도한 당시 광주 지역 고등학교의 재학생 10여 명과 전문 배우가 참여했다.

또한 3명의 독립유공자 포상·기념사·토크콘서트·학생의 날 노래 제창 순으로 이어졌다. 애국가 제창 순서엔 전국 각지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각 지역을 상징하는 장소에서 4절까지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이 함께 상영됐다. 기념식에서는 6인의 학생독립유공자를 발굴, 이 가운데 후손이 확인된 고(故) 조아라·부기준·윤오례 독립지사 3인에 대한 포상을 전수했다.

이어 진행된 기념공연 2부에는 ‘정의 세상을 바꾸다’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가 이어졌다. 아나운서의 사전 설명으로 시작된 토크콘서트는 광주학생 10여 명이 정의에 대해 각자 의견을 밝히며 학생독립운동 정신의 의미를 기리고 계승을 다짐했다. 이어서 가수 휘성이 나와 학생들과 함께 <PRESENT>를 불러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마지막으로 모든 행사 참석자들이 ‘학생의 날 노래’를 제창하며 기념식은 마무리됐다.

이번 기념식은 지금까지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이루어지던 행사가 정부 주관으로 바뀌어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그 가치를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한편, 학생독립운동은 광주 학생들이 1929년 메이지 일왕의 생일인 11월 3일을 기해 광주 시내에서 가두시위와 동맹 휴교 등을 펼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개성·부산·대구 등 전국 각지로 독립운동이 확산됐다. 이에 학생독립운동은 3·1운동, 6·10만세운동과 더불어 3대 항일 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 글. 문승욱 명예기자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학교 운동장에는 아침 일찍부터 예쁜 그림이 그려진 버스 한 대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10월 25일(목) ‘2018 움직이는 예술정거장’의 예술버스가 부산초등학교(교장 신기동)를 방문했다. 노래를 통해 어린 시절을 추억하고, 공감대를 통해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을 이끌어내는 일의 일환이다.

‘움직이는 예술정거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함께하는 농산어촌 및 도서지역의 문화소의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다. 이날 부산초를 찾아온 ‘검정고무신’ 프로그램은 누구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학창시절의 추억을 노래로 꺼내어 보고, 가족들과 함께 한 유년 시절의 공감대를 음악적 요소로 표현해보는 프로그램이다.

버스 내부의 모습은 옛날 교실을 연상케 했고, 참여 강사들이 함께 노래로 화음을 맞추고 게임까지 즐기면서 4, 6학년 학생들이 행복한 시간여행을 떠났다. 시간여행을 마친 박찬빈 학생(6학년)은 “신기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으며 친구들과 음악놀이를 통해 더 많이 가까워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아이들이 예술프로그램을 접하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길 바란다.



“ 글. 김미경 명예기자

식생활교육 고수를 찾아라!

2018 대한민국 식생활교육 대상 시상식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센터) 5층 그랜드홀에서 개최됐다. 올해 제정된 시상식은 식생활교육 분야에서 우수한 활동을 실천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올바른 식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했다.

본상의 경우 77개 팀의 개인·단체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현지심사, 최종심사를 거쳐 총 7개 팀을 선정했으며, 특별상의 경우 4개 지자체, 7개 기관, 728권의 도서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최종 심사를 거쳐 지자체 1곳, 기관 2개, 도서 2권이 선정됐다.

대상은 ‘문경시 우리음식 연구회(대표 정창순)’가 차지했다. 향토음식 발굴·보급을 통한 식생활교육과 전통 식생활 계승을 위한 홍보활동·자료 보존 노력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5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됐다. 은상에는 백명주 방이초등학교 영양교사, 동상에는 김미경 상일중학교 영양사로 선정됐다. 동상에 선정된 김미경 교사는 과일채소 먹이기 캠페인 참여, 청소년 한우고기 먹이기 캠페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교육 등 다양한 캠페인 활동과 광주시 대표 축제인 ‘프린즈 페스티벌’을 통해 학교급식을 알렸다.

우리들의 축제한마당

"너의 끼를 보여줘~"



“ 글_ 이대승 명예기자

어울림 축제의 장, 슈퍼스타 YOU!

경상남도특수교육원(원장 박용학)은 지난 10월 19일 경남특수교육원 대강당에서 '2018 특수교육 대상 학생 문화예술제 슈퍼스타, YOU!'를 개최하였다. '슈퍼스타, YOU!'는 올해 세 번째를 맞이하는 행사로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문화예술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어울림 축제의 장이다. 올해는 도내 학생, 학부모, 교사, 특수교육 관계자 360명이 참여하였다. 문화예술제 공연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로 이루어진 10개의 다양한 학생 공연 팀의 무대로 채워졌으며, 오랜 시간 갈고닦은 실력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 글_ 김영근 명예기자

세계시민으로 키우는 '글로벌 페스티벌'

지난 10월 30~31일 대구 성남초등학교(교장 성증약)는 본교 강당 한울관에 '꿈·희망·인성을 가꾸는 2018 Happy 성남'이라는 주제로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글로벌 페스티벌을 펼쳤다. 이 학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정 글로벌 창의 미래학교로 평소 글로벌 인재 역량 함양 및 학생의 영어 의사 소통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일환이다. 글로벌 퍼포먼스에서는 평소 배우고 익힌 것을 자신의 재능과 끼, 열정을 보여주는 공연으로 꾸며 발표했다면, 10월 31일 글로벌 문화 체험은 세계 다른 나라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느껴보는 기회를 주었다. 다문화 강사, 원어민 교사와 함께 10개 부스에서 여러 나라의 독특한 문화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글로벌 인성 러닝 페어는 학년별 복도 및 교문 입구 등에 학생 1인 1 작품을, 글로벌 수학 한마당은 복도 코너에 2018 수학 나눔 학교 운영을 통한 수학 교육 활동 결과물을 전시하였다. 조은진(6학년, 전교어린이회장)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발표회를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해보는 활동 과정이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말했다.



“ 글_ 김광일 명예기자

"워라밸? 우리는 '스라밸'이죠!"

청소년들이 일상의 스트레스를 발산하고 건전한 청소년 여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2018년 제6회 청소년 행복 페스티벌'이 지난 10월 27일(토) 대구의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열렸다. 축하공연 및 전국 청소년 무대 경연이 열렸고, 다양한 체험과 참여마당이 있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스라밸' 체험 부스가 63개 설치되어 있어 많은 청소년들의 호응이 있었다. 어른들이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심이 있다면 학생들은 '스라밸'(Study and Life Balance: 학업과 생활의 균형)에 관심이 많다. 학생들에게 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며 밤늦게까지 사교육을 강요하고 있는 한 학생들의 스트레스만 늘어갈 뿐이고,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커질 것이다. '청소년 행복 페스티벌'의 무대와 각 체험부스에서 봉사하는 학생들의 표정은 밝았으며 친절했고 뒷정리까지 깔끔하게 하였다.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며 방문객들에게 체험활동을 안내하는 모습을 보니 역시 원하는 일을 하면 열심히 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다. '스라밸'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어른들의 책무가 아닐까?



“ 글_ 김잔디 명예기자

팔고 사고 기증하는 학교 장터

경기 중탑초등학교(교장 김미준)는 10월 20일 학부모회 주관으로 '팔고 사고 기증하는 중탑 체험마당'을 개최했다. 중탑초등학교 학부모회(회장 남영희)는 온 가족이 참여하여 물건 재사용의 의미와 소중함을 배우고 건전한 소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에 앞장서며 기부 의 기쁨도 함께 일깨우고자 행사를 개최하였다. 올해로 3년째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판매와 기증을 위한 벼룩시장과 먹거리 마당이 펼쳐졌으며, 가족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DIY(Do-It-Yourself, 가정용품의 제작·수리·장식을 직접 하는 것) 체험마당과 놀이마당도 함께 열었다. 특히, 벼룩시장 장터에서는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가지고 나와 팔기도 하고, 필요한 물건은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어 물건 재사용의 의미를 배울 수 있었다. 또한, 가정에서 쓰지 않는 물건들을 모아 아름다운가게(이매동 성남아트센터 소재)에 기증함으로써 기부 의 기쁨도 맛보는 기회가 되었다. 김미준 교장은 "팔고 사고 기증하는 중탑 체험마당이 학부모회의 자치활동으로 진행되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다.

“ 글_ 오인선 명예기자

‘뺏다 패밀리’ 강릉투어 힐링 여행기



지난 10월 20일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서울수색초, 상신중, 영락중, 덕산중 4개교가 함께 하는 ‘뺏다 패밀리’ 강릉투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두 세대 지원 영역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 행사는 연초에 4개교 지역사회교육전문가(교육복지사)들이 분기별 가족체험 프로그램, 테마여행, 뮤지컬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것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단 한 사람의 결석도 없이 100% 출석률을 자랑하며 4개교에서 모인 가정 총 44명은 부푼 마음을 안고 강릉행 기차에 올랐다. “우와~ 저희 KTX 열차 처음 타 봐요~ 너무 좋아요~”라고 말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학생들과 가족들의 환한 얼굴에 담당자들도 모두 뿌듯해했다.

KTX를 타고 평창역에서 하차한 후 첫 번째 투어 장소인 대관령 하늘목장에 도착했다. 탁 트인 벌판에서 자유롭게 풀을 뜯고 있는 양, 염소, 젓소, 조랑말 등 다양한 동물을 보며 먹이 주기, 사진 찍기, 놀이마당에서 신나게 가족끼리 자유시간을 보낸 후 추암 촛대바위와 논골담길, 묵호등대, 묵호 어시장 등을 돌아봤다.

돌아오는 열차 안에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눈에 띄었던 내용이 있었다. “아빠와 서먹한 관계였는데 이번 여행을 통해 함께 스티커 사진도 찍으며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남기고, 대화도 많이 할 수 있어 참 행복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준비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글_ 김희숙 명예기자

학교 텃밭의 수박, 그림책이 되다



전남 곡성 삼기초등학교(교장 한명희)에서 3학년 학생들이 그림책을 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7월 말, 3개월 동안 학생들이 정성으로 키운 수박을 수확했는데, 수박을 키운 과정을 글과 그림을 그려 『삼삼 수박이 자라면』이라는 그림책이 발간되었다. 아이들이 만든 그림책에는 그동안의 과정이 오롯이 담겨 있다. 동화작가인 김점선 담임교사는 공지락(공감, 지혜, 즐거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림책 읽기부터 텃밭 가꾸기, 그림책 제작까지 일련의 프로젝트 과정을 지도했다. 2학기에는 ‘다다와 함께 떠나는 가정방문’으로 새로운 그림책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다. 한명희 교장은 “한 권 읽기, 그림책 읽기 등 다양한 독서활동을 통해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는 즐거움이 크다.”라고 말했다.

“ 글_ 강호섭 명예기자

두 교육장의 아이스버킷챌린지 참여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미)은 10월 8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청사 앞에서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최순옥)과 함께 루게릭병 환우와 그 가족들을 응원하기 위해 아이스버킷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김기서 경기도교육청 교육1국장의 지목을 받아 성사되었다. 김선미 교육장은 “아이스버킷챌린지 참여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루게릭병 등 희소질환을 앓는 분들과 가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힘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이스버킷챌린지 참여와 함께 김선미 교육장은 소정의 기부금을 루게릭병 환우를 위한 비영리 재단법인 ‘승일희망재단’에 전달하였다.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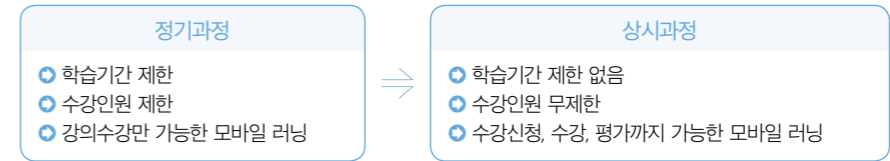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 상시과정 도입

학습기간, 인원에 제한없이 원하는 연수 ‘마음껏’ 배운다



중앙교육연수원은 원격연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14년 통합교육연수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매년 다양한 연수 과정(17년 76개 과정, 18년 126개 과정)을 개설하고 13만 명이 넘는 이수 인원을 배출하는 등 양적·질적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고정된 정기과정으로만 운영되다 보니 수강자 입장에서는 바쁜 학교 업무에 수강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종료 날짜에 쫓겨 여유 있는 학습을 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었다.

이에, 중앙교육연수원은 수강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원격 연수의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1년간의 준비를 거쳐 ‘정기과정’ 운영 체제에서 ‘상시과정’으로 운영 방법을 전환하였다. 상시과정은 학습자가 원하는 다양한 원격연수과정을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지원 체제를 말한다. 즉, 원격연수를 희망하는 모든 분들이 ‘정해진 수강 신청 기간 없이’, ‘학습 종료 날짜의 압박 없이’, ‘원하는 원격연수 콘텐츠의 인원 제한 없이’, 수강하고 싶은 과목을 신청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운영 방법을 전환한 것이다.



새롭게 구성된 원격연수 상시과정을 통해 더 많은 수강생들이 좀 더 풍부하고 자유로운 학습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②



[불법촬영 안전지대]
저희 지하철000억 화장실은 불법촬영 안전지대입니다.



2018 대한민국 시민in 학생축제 참·소·리 “교육감 투표, 왜 어른만 하죠?”

“국민의 기본권인 쉼 권리를 위해 교내에 쉼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청소년에게 쉼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학생들의 당찬 외침. 지난 10월 20일(토)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에서는 ‘학생 시민’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및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개최한 ‘2018 대한민국 시민in 학생축제-참·소·리’에서 아이들은 “학생은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이미 대한민국 시민”임을 선언하며 자유로운 축제 한마당을 펼쳤다.

축제 기획부터 운영까지 학생 주도로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인 참여, 소통, 이해의 앞 글자를 딴 참·소·리 학생축제.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행사는 인성교육과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민주시민교육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학생들이 중심이 된 축제이니만큼 학생들의 참여도 두드러진다. 참가 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축제기획단은 축제 주제, 개막식 구성, 부스·무대 프로그램과 전시 공간 구성 등을 온·오프라인 수시 회의를 통해 직접 기획하고, 행사 당일 축제 운영 지원도 도맡았다.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더 좋고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건 아이들 스스로 내린 평가다.

학생이 묻고 교육부 장관, 교육감, 국회의원이 답하는 정책토크콘서트 시간. 약 30분간 아이들은 3개월에 걸친 긴 고민 끝에 선정한 4개의 정책 안건을 제안했다. 서울



1. 51개 학교, 7개 기관이 참여한 체험·전시 부스
2. 개막식 무대에 오른 학생들이 대형 풍선볼에 희망사항을 쓰고 있다.
3. 정책토크콘서트에서 정책 안건을 발표하는 학생들. 맨 오른쪽부터 김지철 충남교육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용진 국회의원

경문고 1학년 주보민 군은 입시 공부로 빼빡한 일주일 일과표를 제시하며 ‘청소년의 쉼 권리’를 위한 교내 휴식 공간 조성을 요구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충남교육청은 2017년부터 쉼 있는 행복학교 만들기를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는 도내 60개교에 카페, 숲길 등 행복공간을 만들고 있으며 앞으로 매년 150~200개교에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창의적 학습이 이뤄질 수 있는 공간의 혁신, 교실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 학교의 다양성과 학생 의견을 통해 바뀌어나갈 것”이라고 응답했다.

- 4. 학생회 자치활동 전시물
- 5.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난민 아동 이해 전시
- 6. 한국YMCA전국연맹 모의투표 체험
- 7. 학생들이 제안한 교육정책을 안내하는 아이들
- 8. 개막식 무대 기념촬영
- 9. 10. 퀴즈, 게임 등을 통한 사회 참여 캠페인 활동



을 위한 일익인 서명운동을 시작한 성화초. 6학년 송영범 군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희망메시지 적기 활동도 벌인다. 많은 이들이 서명해서 할머니들께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학교의 주인은 우리들입니다”

학생자치는 학생들을 학교의 주인으로 만들었다. 학생들은 크고 작은 행사를 스스로 계획을 세워 진행하고, 학생·교사·학부모 3주체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자율협약을 맺어 실천한 사례도 있다. 특히, 사회참여 동아리를 중심으로 사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학생회를 통해 학교 예산·운영에 참여하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인식부터 다문화 사회, 평화를 위한 종전 선언에 이르기까지 ‘학생 시민’의 모습을 엿보는 자리였다. 또한, 더 이상 학생이 학교의 주변인이 아닌 ‘주인공’으로 당당히 나선 아이들의 열정과 노력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학생들이 당당히 시민임을 선언하는 자리이자, 어른들에게 반성의 기회다. 학생들이 주도한 이러한 축제 경험이 앞으로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교육에서부터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②

이 외에도 아이들은 “전국 시·도교육청 내에 학교폭력감등조정자문단을 설치해주세요.” “학생참여인증제 도입을 통해 학생도 학교나 교육청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 15세 이상 청소년에게 교육감 선거권을 주세요.” 등 주요 안건을 쏟아냈다.

과천중 3학년 변예진 양의 “교육주체인 학생이 만 19세 이하라는 이유로 교육감 선거에서 배제되는 건 옳지 않다.”는 당찬 제안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년 전부터 투표를 위한 준비를 해오고 있으며 기회를 만들어 준다 면 가능하다고 본다.”며 힘을 실어주자 아이들의 힘찬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학생 시민’으로 목소리를 높이다

체험·전시 부스에서는 때 아닌 홍보전이 벌어졌다. 학생 정책 제안부스 10개동을 체험하고 투표소에서 원하는 정책을 투표하기로 한 것. 서울 서일중은 ‘소수자 배제 없는 세상을 위한 인권교육 의무화’를 제안하고 나섰다. 행사장 구석구석을 다니며 성소수자 인식 캠페인에 나선 서일중 1학년 정주현, 이수진 양은 “인권동아리 활동을 통해 성소수자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성소수자는 동성애자뿐 아니라 여성애자, 남성애자, 젠더퀴어, 제3의 성 등을 포함하는데, 이들의 인권에 관심을 갖자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이 외에도 청소년 성 문제 해결을 위한 성교육 표준안 개

정을 요구한 광수중, 주(월) 1회 학생이 계획·운영하는 수업을 제안한 세솔초 등에서 ‘시민’으로 나선 학생들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묻어난다.

51개 학교, 7개 기관 등에서는 학생 중심의 학생자치활동과 인성교육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다양한 체험·전시도 눈길을 끌었다. 신원중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었던 지역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5·18 관련 전시물을 달고, 주먹밥 나눠주기, 인권차치 빙고게임을 진행했다. 신현중은 학생회의 과거·현재·미래 체험을 주제로 독립운동 배지 만들기(과거)와 신원중 학생자치 활동 결과(현재)를 전시하고, 통일 학생회로 미래의 청사진을 그렸다. 일본군 성노예문제 해결



보성초 작은도서관은 우리의 놀이터이자 꿈자람터!



종소리가 울리자 각 층마다 마련된 작은도서관으로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든다. 책을 읽는 아이, 마루에 엮드려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아이 등등. 그 모습은 제각각이지만 그곳에서 친구들과 행복한 꿈을 키워나간다는 점은 꼭 같다.

보통 도서관이라고 하면 수많은 장서와 진지하고 정숙한 풍경이 떠오른다. 그런데 보성초의 도서관은 사뭇 그 분위기가 다르다. 각종 마다 각기 다른 콘셉트로 7개(학년별로 1개, 유치원에 1개)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슨 모양을 내야 좋아할지, 어떤 색을 입혀야 더 자주 찾아오고픈 마음이 들지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들의 마음이 되어 하나하나 고민해 만든 결과물이다.

이는 공간뿐 아니라 이곳에 비치된 책에도 적용되는 법

칙이다. 책등이 아니라 책 앞표지가 보기도록 정면배치함으로써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눈길과 손길이 더 쉽게 닿도록 했다.

공효빈(5학년) 학생은 “친구들과 놀 수도 있고 쉴 수도 있는데 재밌고 좋은 책들도 있다. 이런 장소가 학교에 여러 군데 있어서 정말 즐겁다.”고 말했다.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은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판단하여 알맞게 활용하는 능력이다. 이를 기르는 것은 곧 충남교육이 표방하는 참 학력 신장과 다르지 않으며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독서보다 더 적절한 것은 아마 없을 것이다. 보성초의 작은도서관은 놀이터이자 꿈자람터이다.



전남독서토론열차학교, 나만의 책 91권 출간

전남독서토론열차학교에 참가한 학생들이 책 91권을 출간해 화제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학생저자 선집' 공식 출간 사례이다.

이번에 출간된 책들은 전남교육청이 지난 2월부터 10개월간 운영한 독서토론열차학교의 '1-Brand 책쓰기 프로젝트'의 결실로, 120명의 고등학생들이 책을 읽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며 직접 쓴 원고를 책으로 펴낸 것이다. 전남교육청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약자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라는 슬로건 아래 중국과 러시아, 몽골 탐방을 중심으로 1년간의 교육과정을 지닌 학교 형태의 열차학교를 운영해 왔다.

해마다 독서와 토론, 책쓰기로 이어지는 인문 융합 교육과정을 진행했는데, 졸업을 앞두고 학생저자들의 책을 공식 출간함으로써



교육활동의 대미를 장식했다. 지난 2월 열차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교육과정에서 선정된 도서들을 심도 있게 읽고, 책속에서 논제를 찾아 다양한 토론기법으로 생각을 다듬는 활동과 인문 융합 책쓰기 수업을 받아 왔다. 또 여름방학 동안 17일에 걸친 유라시아 열차대장정을 통해 저마다 주제를 찾아 책쓰기 활동을 진행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학생 저자들은 직접 주제를 찾고 탐방하며 상호토론을 통해 시와 소설부터 소논문, 에세이까지 장르를 불문하고 완성한 스토리텔링 역량을 드러냈다.

91권에 달하는 학생저자들의 책들은 10월 22일부터 도교육청 1층 갤러리 이음 전시관에서 전시되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번에 출간된 선집은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되고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다.



사랑·나눔 봉사단, 10년 차 소록도 봉사활동



광주동신여자고등학교(교장 손해근) 학부모 사랑·나눔 봉사동아리에서 10월 20일 전남 고흥에 위치한 소록도로 봉사활동을 떠났다. 학부모 봉사단, 학부모회, 학생, 교사 등 100명이 함께 한 이번 봉사활동은 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10년간 이어지고 있어 의미를 더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소록도 역사 체험 활동으로 시작해 환우들의 집안 청소, 어르신 말벗 해드리기, 봉사단에서 준비한 선물과 학생들이 손수 모은 기부금을 성당에 전달하는 행사로 마무리됐다. 특히 학생들은 소록도의 역사 체험 활동을 통해 환우들의 아픔의 역사를 이해하며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함께 참여한 동신여고 손해근 교장은 “어두운 그늘에서 소외되고 평생을 고통 속에서 지내는 한센병 환우들에게 위안과 사랑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입시 위주의 교육적 틀에서 벗어나 실천적 봉사활동을 우리가 몸소 체험함으로써 나 혼자만이 잘 살아야 한다는 이기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더불어 함께 사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며 봉사활동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행사 의미를 전했다.



스포츠로 만든 네잎 클로버 '클로버 축제'



부산 명장·금사지역 4개 초등학교 학생 300여 명이 10월 18일, 울산 간절곶 스포츠파크에서 열린 '클로버 축제'에 참가해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금사초, 동상초, 명동초, 안락초 5, 6학년 학생들이 참가한 이 행사는 올해로 4회째이다. 4개 학교는 스포츠 교류 활동으로 인근 학교 학생들 상호간 공감과 이해의 장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함양하도록 2015년부터 '클로버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행사는 학교별 경쟁보다는 정정당당하게 겨루는 스포츠맨 정신을 배우고 학생 상호간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4post 축구, 2x2 피구, 지구공 나르기, 줄다리기, 릴레이 등 1:1 승부가 아니라 동료와 함께 하는 종목들이다. 특히, 줄다리기는 금사초와 명동초, 동상초와 안락초가 각각 한 팀이 되어 경기를 펼쳤다. 줄다리기에 참가한 한 학생은 "학교는 다르지만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한 마음으로 협동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학생들의 교육포럼, 우리가 꿈꾸는 학생자치

11월 3일, 학생의 날을 기념하며 세종시 보람고등학교 강당에서 학생들의 세종교육포럼이 열렸다. 세종의 12개 고등학교에서 95명의 학생이 인솔교사 10명과 함께 참석한 이날 포럼에서 학생들은 '우리가 꿈꾸는 학생자치'라는 주제에 대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발제를 맡은 세종국제고등학교 2학년 박병건 학생은 "자유가 동등하게 향유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다"라는 로마 공화정의 장군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공화주의에 대해 밝힌 이야기를 시작으로, 학생자치와 민주주의 실현, 학생자치의 변화에 대한 깊은 물음을 던졌다. 김혜선 학생은 소담고등학교에서 진행된 학생자치의 구성 형태와 진행 상황에 대한 일련의 사건을 소개했다. 발제와 사례발표 이후 월드카페 형식의 토론이 열렸다. 이상헌 교사의 진행으로 학교규범과 생활공간, 토론문화와 학교



문화, 학생활동과 학생조례 등 4차에 걸친 토론 후에 퍼실리테이터들의 종합토론과 발표가 이어졌다.

일제강점기 학생운동이 불의에 대항하고 민족적 자긍심으로 하나의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 낸 것처럼 세종시 학생들의 자신들의 목소리를 담은 공동 토론이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학생자치의 역사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해본다. ②

공영형 사립대학, 교육 받을 권리와 국가책임론



한국사회는 커다란 변화의 와중에 있다. 변화의 흐름은 '이것도 나라냐'하며 촛불을 든 시민들이 창출해 낸 것이다.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 시급하게 해결하여야 할 우선적 국가과제가 교육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가 교육제도를 통하여 충분히 실현될 때에 비로소 모든 국민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되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할 수 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¹⁾

교육이 갖는 이러한 의미를 고려할 때 교육은 사회의 자율에 맡겨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모든 국민에게 그의 능력에 상응하는 교육가능성을 제공하는 공교육제도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와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²⁾ 이는 사회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교육의 비중이 있어 국·공립학교가 원칙이고, 사립학교가 예외라는 학교교육제도의 원칙적 국·공립화에 관

한 헌법적 결정을 의미한다.

공영형 사립대학의 의의

한국 교육의 현실은 헌법 규범의 요청에 충실하고 있는가. 수도권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화석처럼 굳어 있는 대학서열구조와 학벌사회의 형성으로 초·중등교육이 입시위주 경쟁교육으로 왜곡되어 있다. 초·중등교육이 대학입시와 대학학벌체제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초·중등교육의 비정상성, 사교육 팽창과 학벌지향의 고용구조 등 한국 교육 문제의 핵심적 고리는 대학서열구조와 학벌체제이며, 이의 해결 없이는 한국 교육의 정상화와 발전은 요원하다.

'공영형 사립대학'은 폐쇄적인 사립대학 지배구조를 지방정부·지역사회 등 당해 대학과 긴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민주적·공화적으로 구성하여 공영화하고 대학서열구조 완화, 초·중등교육 정상화 등 공적 과제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가가 교육경비의 50% 이상을 인수하여 교

1) 헌재 1991. 2. 11. 90헌가27 2) 헌법 제31조 제1항

공영형 사립대란?



부하거나 출연하는 사립대학이다. 공영형 사립대학은 형식적 또는 법적으로는 사립대학이지만, 국·공립대학과 같은 공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혁신 사립대학 모델이다.

이러한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확대 정책은 그 자체 독립적인 정책이 아니다. 사립대학 중심의 고등교육 생태계에서 국공립대학의 확충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영형 사립대학은 거점국립대학, 지역 국립대학과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여 권역별 지역네트워크로 연합하고, 여기에 재정지원을 집중하여 지역 고등교육의 질을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 이상으로 상향 균등화·다양화함으로써 대학서열구조와 학벌주의를 완화·해체하고 한국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그랜드한 장기적 대학체제개편 방안의 핵심적 구성 부문이다. 4차 산업혁명이 라는 문명 전환기에 있어 미래 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한 창의적 해결책을 찾아내는 길은 대학 교육과 학문의 연구일 수밖에 없다.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확대 정책을 포함한 대학체제개편은 대학공유네트워크를 통해 학문의 발전과 창의적 교육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고등교육의 질을 획기적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고등교육 혁신방안이다. 이런 점에서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 정책을 포함한 대학체제개편은 한국의 교육현실과 촛불시민정신이 만나는 지점에서 제출된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대학 상으로 우리에게 “교육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나아가 “우리에게 대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과 이에 대한 응답이 내장되어 있다.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적 요소로서 공영형 사립대학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의 기본원리일 뿐만 아니라(헌법 제120조, 제122조),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의 여건과 질이 전국에 걸쳐 상당히 균등화되어 있을 것을 요구한다(헌법 제31조 제1항). 정부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 등 그동안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방교육이 취약하고 이로 인해 지역 경쟁력과 발전 전략에 필요한 인재가 양성되지 않아 산업유치·인구유입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종래 농어촌·중소도시에 이어 지방 광역시마저 수도권으로 인구 엑소더스가 발생하여 소멸지역으로 급발전하고 있다. 이는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중에도 계속되었다.³⁾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확대 정책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국공립대학과 권역별로 연합하고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여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에 뒤지지 않는 지역 발전과 혁신에 필요한 공공성이 강화된 지역대학 육성정책으로 지역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고 당해 지역의 발전 전략에 따라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대학으로 기능할 것이 기대된다. 이런 점에서 대학서열체계의 해소를 위한 대학체제개편의 중요한 내용인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확대 정책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필요적·핵심적 구성요소이다.

고등교육은 일반적으로 국가사무로 인식되지만 지역공동체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사무의 성격도 갖는 공동사무의 성격을 갖는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지방정부는 지방대학 역량 강화와 교육 개선지원, 지역인재 양성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책무 등이 있으며(동법 제3조·제12조 등 참고),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가 있다(동법 제3조).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확대 정책은 지역균형발전을 필요적·핵심적 요소일 뿐만 아니라 지방사무의 성격도 가지므로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확대 정책에 지방정부의 재정적 기여와 참여가 포함되어야 한다.

3) 『한겨레신문』, 2018. 8. 10.자; 『중앙일보』, 2018. 8. 13.자

대학서열체계의 해소를 위한 대학체제개편의 중요한 내용인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확대 정책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필요적·핵심적 구성요소이다.

고등교육 위기는 대학체제 개편의 기회

학령인구 감소의 대응방안으로 폐교와 대학정원을 줄이는 대학구조개혁정책은 소모적 대학경쟁을 심화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2022년 전문대는 43개, 2024년 일반대 73개가 폐교될 것으로 전망⁴⁾되는 고등교육의 위기는 대학체제개편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적기이다.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확대 정책이 부실대학 지원정책이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다. 그러나 한국 고등교육의 여건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매우 취약하며, 4차 산업혁명의 도전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문화적·사회적 발전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의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투자가 요구된다. 현재 학령인구의 감소, 대입정원 미달, 재정난 심화의 위기 속에 사립대학의 연쇄폐교 사태가 현실화되고 상황에서 부실대학이라도 하더라도 중요한 사회적 자산으로 폐교 등의 방식으로 고등교육의 자원을 사장하는 것은 한국 고등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폐교대학 관리를 위해 재정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이른 바 부실대학 정책과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확대 정책을 연계하여 고등교육을 발전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들 대학이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확대 정책의 우산 아래 편입되도록 하여 건강한 사학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전시(展示)할 수 있다면 이는 공영형 사립대학의 필요성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고등교육 체제개편에 재정 뒷받침 필요

문재인 정부의 “대학서열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

4) 『동아일보』, 2018. 1. 25.자

해 ‘지역 국립대학’을 집중 육성하고, 대학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는 ‘장기적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립대학’을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육성하여 이들 대학을 ‘한국형 네트워크 대학’으로 변화·발전시키겠다.”는 대학체제개편방안은 야심만만한 의욕은 담고 있다. 재정 확보는 대학체제개편을 위한 실질적 전제조건으로서, 공영형 사립대학의 우산 아래 많은 사립대학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을 종결짓고 노예들을 해방시킨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버금가는 중요한 업적이 모릴법(Morrill Act)을 통해 미국 고등교육의 토대를 닦은 것이다. 모릴법은 미국의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세계 최고로 끌어올리는 노릇들이 되었으며, 아직도 미국 독립 이후 제정된 법안 중 가장 생산적인 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링컨과 같은 혜안을 가지고 공영형 사립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체제개편의 기반을 구축하여 한국의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한국의 링컨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등교육의 육성을 지역의 발전과 묶고 대학의 경쟁력을 개별대학의 차원이 아닌 우리 사회의 공공의 역량으로 사유하려는 대학체제 개편방안은 학벌주의와 신자유주의 경쟁체제에 길들여진 우리의 시각과 인식의 전환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확대정책의 실현은 우리에게 ‘대학이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설계하는 혁신의 장이어야 하며, 공영형 사립대학은 경쟁과 생존의 절벽으로 내몰린 사립대학의 일부를 선별적으로 구원해 주는 방주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교육을 구상하고 실천하는 작업이어야 한다. ⑦

4차 산업혁명 시대, 인문학의 물음



‘우리’는 민주사회의 시민인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소수의 공학자-자본가-정치가 집단인가? 여전히 인간 종으로 구성된 집단인가, 아니면 로봇과 증강된 몸을 가진 새로운 인류를 포함하는 집단인가? 그리고, 새로운 기술발달의 과정과 방향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제5회 세계인문학 포럼이 한국연구재단의 주관과 교육부, 유네스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산광역시의 주최로 부산에서 열렸다. 40여 개국에서 모인 130여 명의 학자들이 “변화하는 세계 속의 인간상”이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분야의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필자도 논문을 발표하고 사흘 동안의 토론에 참여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적절했다. 요즘처럼 빨리 변하는 시대에 인간의 모습은 무엇이고, 인간의 자리는 어디인가 하는 물음을 던진 셈이기 때문이다. 우리 시대의 변화는 그 속도뿐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특징을 가진다. 그 중에서도 인간 자신과 직접 관련된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유전자까지 치료하거나 변형할 수 있는 기술, 인간의 몸을 향상시키는 기술, 인간의 사고를 모방하거나 대체하는 인공지능 기술 등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이제까지 인간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견해들에 대한 새로운 반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을 긍정적으로 볼 것인지 부정적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오늘날 인간의 삶과 본질에 가장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종교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기술이라는 사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 인간에 대한 학문인 인문학이 인간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4차 산업혁명과 만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기술의 문제가 인문학의 핵심 주제로 부상한 것이다. 지금까지 인문학은 기술의 문제를 중요한 주제로 삼지 않았고, 공학은 인문학의 필요를 무시한 것을 생각하면 이것 또한 큰 변화다.

기술의 문제, 인문학의 핵심 주제가 되다

인문학에 새롭게 주어진 과제는 단순히 개발되고 있는 기술들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구별하거나, 혹은 우리의 인간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넘어선다. 이제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인간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상이나 지식을 완전히 바꾸어야 할 때를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번 포럼의 주제에 ‘인간상’이 들어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제 인문학의 물음은 단지 중요해진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지금까지 동서고금의 인문학은 인간에 대해 어떤 정해진 이상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었다. 여러 철학 이론

이나 서로 다른 종교들이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은 이러이러한 것”이라는 각자의 견해들을 피력해 왔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이상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서로 경쟁해 온 것이다. 그런데 기술이 발달해서 인간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될 가능성이 열리고 나니, 그 가능성 중 어떤 것을 왜 선택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대두된다. 예를 들어 기술의 발달로 인간이 거의 불멸에 가까운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혹은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보다 더 나은 능력을 가지게 할 수 있다면, 과연 그런 가능성을 실현시키는 것이 이상적인지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이는 인문학이 오랫동안 물어왔던 삶과 죽음, 도덕, 법, 공동체, 좋은 사회, 예술에 대한 물음들이 전혀 새로운 옷을 입고 우리 앞에 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간보다 나은 인공지능 로봇의 실현, 이상적인가?

나이가 아무 부담 없이 사용하던 ‘우리’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조차 다시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우리가 이러저러한 첨단 기술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할 때의 그 ‘우리’는 민주사회의 시민인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소수의 공학자-자본가-정치가 집단인가? 여전히 인간 종으로 구성된 집단인가, 아니면 로봇과 증강된 몸을 가진 새로운 인류를 포함하는 집단인가? 이는 새로운 기술발달의 과정과 방향을 누가 결정할 것인지, 또 향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인류 공동체의 구성원이 누구인지에 대한 중요한 물음이다.

이런 논의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라는 수동적인 물음과 다른 차원에서 제기된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할 것과 그로 인해 생길 변화들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면 남는 것은 쓰나미나 태풍에 대비하는 것처럼 살아남기 위한 방도를 찾는 일 뿐이다. 그러나 이 같은 태도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든 기술과 그 결과에 스스로를 종속시키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보다는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바로 여기에 인문학적 고찰의 필요와 가치가 드러난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요컨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여러 기술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오래된 궁극의 물음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이 물음을 던지는 것은 그 자체로 흥미로울 뿐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더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 중요하다. 이번 세계인문학포럼을 통해 첨단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시대에 인문학의 역할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음이 부각된 만큼, 이러한 논의들이 건설적으로 지속되면 좋겠다. ㉞

아시아의 시험문화(culture of testing) 추격 산업화 전략과 평가집착사회



매우 익숙한 풍경

한국에서는 매년 11월이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다. 수험생들이 그들의 미래를 위해 너무나 중요한 대학 입학시험을 치르기 위해 시험장으로 향하는데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것을 돕기 위해 관공서와 민간 회사들은 시험을 치르러 고사장으로 향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직원들이 평소보다 한 시간 늦게 출근하도록 출근 시간을 조정하고 비행기의 이착륙은 학생들이 듣기 평가를 하는 시간 동안 금지된다. 한국공항공사는 시험이 치러지는 날 국내선을 재조정하거나 취소했고 두 개의 국제선도 시간을 재조정할 것이 기대된다. 자동차들은 같은 시간 시험장 근처를 지나면서 경적을 울리는 것이 금지되고 지하철과 버스가 추가

로 운행되며 주식 및 외환시장도 한 시간 늦게 개장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풍경이다.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할 정도로 시험지를 무기 보급하듯이 철저한 보안 속에 공급하고, 시험 응시자는 실시간으로 상황실로 보고되며, 시험이 실시되면 출제위원장이 언론이 나와 출제 경향, 난이도 등을 국민들에게 설명한다. 그런데 외신에서는 이 익숙한 풍경을 매우 낯선 풍경으로 그렸다. AFP는 모든 관공서는 출근을 한 시간 늦추고, 듣기 평가가 실시되는 시간에 항공 스케줄도 재조정되는 풍경을 매우 낯설게 보도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이런 풍경이 펼쳐지는 이유를 단 한 번 치러지는 국가 차원의 종교의식으로 인생의 성공을 결정짓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시아적 현상으로서 '시험문화'

한 방에 인생이 끝나는 종교적 제의로 인생의 성공이 결정되는 것은 한국의 교육에서 고질적인 문제이다. 그래서 교육학자들은 한국의 모든 교육 문제는 어떠한 교육철학과 목표도 녹여 버리며 입시 문제가 모든 교육 이슈를 삼켜버린다고 말하며, 이러한 상황을 평가 중독 사회, 또는 평가집착사회로 묘사했다. 그런데 학생들을 과도한 경쟁 압력으로 내모는 평가집착 현상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아시아적 현상이기도 하다. 그럼 아시아 여러 나라의 교육 현장에서 시험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고, 시험이 교육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어쩌면 이미 답이 정해져있는지도 모르는 이 질문에 대

한 답을 찾기 위해 유네스코 방콕사무소는 <시험문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배움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관하여> (The Culture of Testing: Sociocultural Impacts on Learning in Asia and the Pacific)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방글라데시, 피지,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한국, 필리핀, 통가, 베트남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기존에 발간된 자료를 취합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가 그려내는 이들 나라의 평가문화 특징은 우리가 이미 예상했던 대로다. 학생들은 경쟁이 치열(highly competitive)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고부담시험(high-stakes examination)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복잡한 세계를 탐색하는데 필요한 실제적이며, 종합적 역량을 계발하는 대신에,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으라는 압력을 받는다. 왜냐하면 사회가 성공에 대한 척도로 시험(tests as a measure of success)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무엇이 이렇게 시험 권하는 사회를 만드는가? 지필평가가 전 세계 어느 교육과정에서나 존재하는 평가 방식이지만 이들 국가에서의 시험은 단순한 교육과정으로서 평가를 넘어서서 '시험문화'(culture of testing)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시험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시험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험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은 시험에 '목숨 걸고' 뛰어들게 된다. 문제



는 목숨 걸고 시험경쟁에 뛰어나는 것이 '사회적 계층 이동'과 '더 많은 경제적 기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진다는 이유로 시험이 한정된 자원을 분배하는 도구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부모들에게 미래에 더 좋은 삶의 기회를 보장하는 도구가 시험 점수이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다른 국가들과 구별하여 한국에는 독특한 '교육열(education fever)'이 있다고 말한다. 이 같은 교육열의 근원은 교육을 통해 좀 더 상위층으로 올라가려는 욕망, 즉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라 될 수 있다는 욕망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자녀에게 더 좋은 삶을 살도록 하고자 하는 욕망은 개인 단위의 경쟁으로 그치지 않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며 올인하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된다. 그래서 보고서에 포함된 아시아 국가에서 자녀의 시험공부는 온 가족의 과업으로 확장된다. 문제는 이런

게 온 가족이 협력하는 과업이 되다보니 더 좋은 미래를 위한 수단으로서 평가가 학생들에게 동기와 함께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평가가 교육본연의 목적이 되도록 하려고 노력해왔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시험성적이 미래의 '기회'라고 굳게 믿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활동에서 학습 과정보다 시험 결과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렇게 교육과정의 주요 관심이 시험 점수로 집중됨으로써 학습의 목적 또한 점수로 단순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아시아 국가들에서 이러한 문화가 고착화되면서 더 높은 점수를 위해 무한 경쟁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학생들은 커다란 중압감을 느끼게 된다.

능력개념의 왜곡과 평가집착

보울스와 진티스(Bowles and Gintis)는 민주주의가 정치적 차원을 넘어 경제문제까지 확장되었을 때 비로소

**시험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은 시험에 '목숨 걸고' 뛰어들게 된다.**



학교교육은 사회적 평등을 육성하고 청소년의 창조적 잠재력이 온전하게 발전하도록 촉진하며, 새로운 세대를 우리 사회의 질서 안으로 통합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보울스와 진티스의 시각은 교육을 교육의 논리로서만 바라볼 수 없고 정치논리와 모순적으로 결부된 양상을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아시아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시험문화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 능력의 개념이다. 본래 능력은 근대의 세습제를 대체하는 개념이었다. 근대적 공교육제도로서 학교는 이러한 능력주의의 출현과 함께 시작되었다. 다시 말해 개인이 속한 계급이나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철저하게 개인의 지능과 시험결과, 능력만을 토대로 운영되는 사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자신의 노력에 따라 성취한 결과에

따라 상위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교제도가 만들어져야 했다. 그래서 학교는 오로지 능력만을 기준으로 삼는 평가체계를 만들었다. 문제는 능력이 전 근대적 세습제도와 같이 직업의 위계를 만들어 내면서, 학교교육에서의 평가는 단순한 교육적 성취를 넘어서서 위계질서 속으로 편입하는 수단이 되었고, 보다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이 자신보다 밑에 있는 사람을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금 등에서 차별을 받는 것을 당연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승자독식과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모든 사회구성원은 무한경쟁을 해야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교육 제도는 한편에서는 자유주의적 흐름을 형성하였고, 한편에서는 공정한 평가 제도를 통해, 누구든 능력이 있으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끊임없는 능력주의를 확산하는 방향에서 발명되고 재생산되었다.

여기에 더해 보고서에 포함된 나라들은 일본이 조금의 예외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서구에 의한 근대화라는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자본주의 발전은 선진국을 빠르게 추격하는 전략을 통해 급속한 산업화를 이뤘다. 그런데 정부와 기업만 추격 전략을 피한 게 아니라 대중들 사이에도 추격의 심리가 뿌리 내렸다. 경제 성장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부와 권력을 늘려가는 부유층을 따라 잡으려는 전 사회적 추격전이 벌어졌다. 추격전의 주된 행위자는 처음에는 중산층이었다. 그리고 중산층이 추격 수단으로 요긴하게 써먹은 입시 교육 경쟁에 온 국민이 뛰어들기도 했다. 이것이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의 시험문화가 매우 유사한 구조를 보이는 이유이다.

이러한 것들이 결합되면서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에 의한 시민혁명 없이 산업화와 평등주의를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평등은 전근대적 신분제의 해체가 아니라 '나도 노력하면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평등'으로 변형되었다. 이것은 지위상승의 평등주의이고, 사회 진화론적 관점에서 개인적 적응과 지위 상승전략을 추구하는 연대 없는 평등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다. 특히 이들 나라에서 진행된 불균등한 산업화 과정은 국가에 의한 복지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복지가 발전해듯이, 교육을 통한 지위 경쟁의 행위주체가 개인이 아니고 가족이 되도록 했다. 그래서 물질적 부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격렬한 경쟁에 돌입하

여 승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아니라 가족 수준의 자원 결속과 지원, 동원 체제를 만들었다.

문제는 이러한 가족동원 평가집착 문화가 사회적으로 연대를 해치는 비도덕적 가족주의(amoral familism)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아시아의 시험문화를 특징짓는 가족 교육열이며, 지위상승을 향한 열병을 만들었다.

평가패러다임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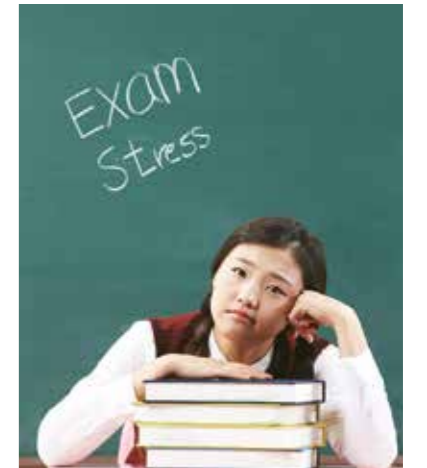
보고서는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시험이 주는 부정적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학생 중심의 종합 평가를 도입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중심의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이 시험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팀워크나 협력 같은 역량을 더 잘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패러다임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적으로 국가수준 교육 과정에 반영되어 왔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수 학습활동과 평가 활동을 분리시키고 일련의 학습이 이루어지고 난 후 그 결과 또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평가가 실시되는 평가, 자주 반복해서 보는 평가에서 교수 학습의 한 과정으로 접근하는 평가로 전환하였다. 자연스럽게 평가의 내용 또한 학생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의 양과 종류를 평가하기보다는 필요한 정보들을 얼마나 신속하게 찾고 문제해결을 위해 얼마나 창의적으로 정보들을 활용하며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나아가는지에 관심을 두는 평가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단순 지식 측정을 위한 지필평가 중심의 평가 방식을 지양하고 실제적, 다면적인 방법을 통해 문제해결력, 창의성, 비판적 사고, 협력, 의사소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의적 특성 측정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교육과정에서 평가패러다임의 변화가 견고한 시험문화를 바꾸는 데 역할을 하기보다 견고한 평가문화 앞에서 평가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험이 사회적 이동성과 경제적 기회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압력과 가족 압력이 상당히 강하다. 따라서 교육과정에서 평가패러다임의 전환만으로 시험문화를 바꿀 수 없다. 따라서 평가를 교육과정에서 평가의 논리로서만 바라볼 수 없고 정치논리와 모순적으로 결부된 평가문화의 양상을 파악해야 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학업의 모든 단계뿐 아니라 지역 사회, 국가 기관에 이르기까지 '시험문화'가 깃들어 있는 상황에서 평가패러다임의 전환만으로 시험문화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큰 도전이며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험의 변화는 사회 전체 시스템의 변화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학생들은 올해에도 11월이 되면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하여, 더 좋은 삶의 기회를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며,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며, 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



할 것이다. 성공에 대한 척도로 시험에 의존하는 것이 지속되는 한 전인적 발달을 돕는 평가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보고서가 교육 당국과 학교, 그리고 정부가 더 넓은 시야와 장기적 계획을 갖고 학생들에게 긍정적 교육 환경을 구축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보고서의 배경이 되는 지속가능발전목표 4(SDGs Goal 4)과 연관된 '교육 2030의제'는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평생 교육의 기회를 증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은 교육이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가족단위의 시험 점수 올리기 무한 경쟁이 아니라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 창의력, 팀워크 같은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을 포함해 노동, 복지 등의 사회 분야에서 함께 힘을 모아 우리 사회에 만연한 시험문화의 부정적 측면을 해소해나가야 한다. ㉞

교과편찬의 자율성과 다양성, 그리고 교사의 전문성



OECD 회원국의 절반, 자유발행제 도입

지난 3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8개월간의 진상 조사를 마무리하고 재발 방지책과 역사교과서 발행 개선안을 정부에 권고하였다. 권고 내용으로는 “교과서 발행제도는 점차 인정제와 자유발행제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인정제는 교육감이나 출판사가 저작권을 갖고 각 시·도교육감이 심의하는 형태이고, 자유발행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맞는지, 위험 요소가 없는지 등 최소한의 기준만 갖추면 출판사가 교과서를 낼 수 있는 형태다.

한편, 교육부는 조사위가 제시한 ‘역사교과서 자유발행제 확대’ 등의 권고안을 최대한 수용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위 권고안에 대한 수용 방침의 근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도입한 나라가 절반(17국)에 달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 중에는 교과서 심의 절차를 아예 두지 않은 형태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역사교과서에까지 자유발행제를 적용할 경우 소모적인 갈등이 빈번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자유발행제를 도입하면 내용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왜곡돼 교육현장이 정치적 이념 논쟁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등학교에서 내신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대입 관련 문제 출제나 평가 측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그로 인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과서 인정제, 자유발행제 적극 고려를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을 두고 논의가 분분하다. 유럽에서는 교과서의 발행과 채택에서 국가기관의 간섭과 통제를 찾아보기 힘들다. 독일의 경우 예외적으로 검정 절차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 기본 취지와 운영 폭으로 볼 때 영국이나 프랑스의 자유발행제와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오늘날 유럽 각국의 교과서들은 국가교육과정을 준거로 삼아 저술될 뿐 민간 출판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발행

되고 일선 교사들에 의해 자유롭게 선택되고 있다.

교과서 발행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교과서 편찬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해치고 교과서 선택의 폭을 좁힘으로써 학생들의 창의성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한 급변하는 지식과 정보의 흐름을 신속하게 학습 내용으로 만들 수 없다는 점, 교과서를 하나의 교수·학습 자료가 아닌 경전처럼 취급하게 만든다는 점 등이 현행 교과서 국·검정제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교과서 국·검정제 중심의 발행은 무엇보다도 교과 전문가로서의 교사의 지위와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교과서 인정제와 자유발행제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자유발행제 도입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입장도 있음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편파적인 교사가 편향적인 내용을 가르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

유발행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학교 수업이 제멋대로 바뀌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단위학교에서는 교과협의회,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협의 절차와 국가교육과정이라는 학교수업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

영국과 독일의 교과서 자유발행제

교과서 자유발행제는 국가가 교과서의 제작이나 발행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개념 정의로는 자유발행제와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유럽의 대표적인 자유발행제 실시국가인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자유발행제의 의미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우선 영국은 어떤 교과 내용을 선정하고 가르치는 문제가 오롯이 교사에게 맡겨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와 교과 수업에 대한 책임을 교사가 전적으로 진다. 예컨대, 학생들의 학력이나 성장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면서, 심지어 해고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종합하면, 영국에서 교과서 발행은 교육에 대한 자율과 책임을 교사와 학교에 어느 수준으로 부여할 것인지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독일의 경우는 검정제에서 자유발행제로 변해가는 추세이다. 일각에

교과서 발행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교과서 편찬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해치고

교과서 선택의 폭을 좁힘으로써 학생들의 창의성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서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는데, 주된 근거로는 첫째, 교과서의 질적 수준의 확보 문제와 둘째,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국가 개입의 문제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독일에서는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유발행제가 지지되고 있다. 자유발행제가 지지받는 가장 큰 이유는 독일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독일 사회는 교과서에 대한 통제 의무가 정부에서 시민사회로, 즉 교육 당사자들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자유발행제 도입에 따른 절충형 필요

이상에서 영국과 독일의 사례를 통

해 자유발행제의 의미를 탐색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이나 독일처럼 전면적인 자유발행제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더라도 자유발행제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충형의 미국식 제도를 차용하여 과도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민간 출판사가 자유롭게 교과서를 발행하고, 시·도교육청 내 (‘가칭’ 지역교육과정위원회)가 그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 후, 인정도서 목록을 만들어 학교에 배포하는 식으로 차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교과서 자유발행제 논의가 미래지향적 교육에 대한 현장의 의견 수렴과 사회 각계각층의 토론을 통해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참고문헌

1. 고유경(2014). 변화하는 독일 역사 교과서-자유발행제와 다원주의적 정체성을 향하여. 역사비평, 2014.8, 190-214.
2. 권오현(2009). 일본의 교과서 제도와 역사 교과서. 내일을 여는 역사, 35, 56-67.
3. 김명정(2012). 사회과 교과서 발행 제도의 개선 방안. 사회과교육, 51(4), 211-225.
4. 김재춘·김재현(2004). 교과서 자유발행제의 의미 탐색. 한국교육, 31(2), 299-320.
5. 김창석(2017). 국·검정제도 폐지 자유 발행제 도입. 케이에스피뉴스 칼럼
6. 김현숙(2009). 미국의 교과서 발행 제도와 그 문제점. 내일을 여는 역사, 35, 68-81.
7. 문화일보(2018.06.08). 역사교육위원회 설치해 ‘공론화’... 認定-자유발행제 확대
8. 아주경제(2018.02.06). 교육부, 교과서 자유발행제 추진위 구성...20여명 전문가 등 섭외 중.
9. 양정현(2014). 한국사 교과서 발행 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역사와 현실, 92, 195-225.
10. 연합뉴스(2018.03.28). 교과서 자유발행제 탄력받나...국정화 진상조사위 확대 권고
11. 이용재(2009). 유럽의 교과서 발행 제도-영국, 프랑스,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내일을 여는 역사, 35, 82-92.
12. 조철기(2015). 지리교과서의 '내용 공정성' 문제: 검정제와 자유발행제의 비교 - 인물, 상품, 기업의 상업적 중립성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54(2), 15-31.
13. 한국일보(2018.03.3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입맛대로 역사교과서, 자유발행제가 해법?
14. 홍후주, 백경선, 김대영(2008). 교과서 발행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교과서 가격 및 검정 도서 책별 이익금 배분제와 발행제도를 중심으로 -. 연구 보고서 2007-3. 재단법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15. 황현정(2017). 역사 교사의 교육의 자율권과 자유발행제 탐색. 역사와 교육, 16, 125-143.

교과서 정책과 교사의 ‘탈숙련화’

‘질문하고 탐구하는’ 교과서 개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학교 현장에서 활용될 교과서는 학생이 질문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탐구하는 방향에 맞춰 개발되었다. 무엇보다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은 수동적으로 질문에 답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는 탐구자가 되기 위해 교실은 학생들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탐구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교과서는 교실을 탐구 공동체로 만드는 매개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는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모범’을 보여주면서 학생들이 이러한 질문을 충분히 익히면서, 자기 질문을 하도록 구성했다. 무엇보다 좋은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진은 국내외 교과서의 질문 방식을 분석하고, 학생 사고를 촉발하는 질문 모형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연구진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출된 연구 결과를 교과서 집필진, 심의진과 공유한 다음, 최종적으로 개발된 질문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지금과 같은 ‘질문하고 탐구하는’ 교과서가 개발되었다.

문재인정부의 교과서 정책

문재인정부의 교과서 정책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과서 개발’이라는 정책방향을 이어받고 있다. 이런 방향에서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과서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과 같은 학생들이 실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디지털 교과서에 연계하여 개발해서 교과서가 학생들의 학습과 경험을 연결시키는 생동적인 교수·학습 자료가 되도록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좋은 학생의 창의적 사고 역량을 기르기 위해 좋은 교과서를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교과서 자유발행제는 혁신교육과 고교학점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아우르는 핵심을 이루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헌법이념을 고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입시와 관련 없는 과목부터 점진적으로 교

과서 자유발행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성전이 된’ 교과서

독일의 사상가인 아도르노(T.W Adorno)와 호르크하이머(M. Horkheimer)는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을 통해 계몽과 신화의 문제를 다루었다. 이성 에 의한 합리화는 모든 것을 규격화하는 대량생산 체제를 이루었다. 이러한 대량생산 체제는 소비자들도 실질적인 차이를 없애도록 했으며, 문화 역시 획일적으로 변했다. 결국 인간 또한 값싼 복제 인간으로 재생산되었다.

처음 국가에 의해 형성되고 운영되는 근대적 교육제도에서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중요했다. 특히 교과 교육과정의 과학적 지식을 체계화하여 각 교과와 지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풍부한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제시한 교과서를 개발하여 각 급 학교에 보급하는 것은 지식을 전수하고 국민성을 형성하는데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잘 만들어진 교과서 덕분에 전국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교수학습, 평가 간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었다.

그런데 복제기술이 세상을 동일하고 획일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처럼 동일한 교과서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탈숙련화시켰고, 학생의 배움과 평가를 획일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교사의 능력 차이를 통제하려는 흐름은 교육목표를 설정하는 데서부터 학습 경험의 선정과 조직 및 그 성취 결과를 평가하는데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교사의 참여를 배제하고 외부 지향적이며 표준화된 관리와 통제를 원칙으로 하는 흐름을 고착화시켰다. 결론적으로 잘 만들어진 교과서는 아무나 가르칠 수 있는 교과서, 교사가-교육과정에서-제도적으로-배제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흐름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교사가 객관적 지식을 재현(representation)하여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수(transmission)하는 과정으로 왜곡되었다. 지식은 개별 학습자와 교사의 경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 자체를 교과서를 통해 교사가 학생에게 재현할 수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배움의 맥락적 특성이 제거되고 교실에서는 교과서를 통한 지식의 전달과 시험점수만 남게 되었다.

교사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 즉 재구성의 시공간 속에서 학생의 배경과 선호하는 학습 스타일에 대한 고려와 이해, 목표로 하는 지식 영역 및 실제 활동의 레퍼토리(repertory)를 규정하고, 교수 전략을 배열하고 선정하며

그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계획을 수립하는 생산적 교육(productive pedagogy)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 자리를 대체한 것이 성취기준을 단원과 차시로 촛촛하고 긴밀하게 엮어서 구체화한 교과서 개발자의 사고 속에 교사의 교육활동이 구속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신규교사나 경력교사나 교육의 결과에서 별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되는 탈전문화, 탈숙련화를 가속시켰고 교사의 전문성을 수업에서 어떤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느냐에 의해 결정되었다.

다시, 자유발행제를 생각하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군), 학년(군) 체제를 유지하면서 성취수준을 학년으로 구분되지 않고, 학년군이 끝나는 시점에서 도달해야 할 성취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렇게 성취기준을 언제, 얼마만큼 다루어야 할지 정해놓지 않음으로써 교사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 즉 재구성의 여지와 공간이 넓어졌다.

그러나 재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대부분의 교과서는 국정교과서 또는 검·인정 교과서이다. 따라서 교사는 검·인정이든 국정이든 학교에서 선택한 한 종류의 교과서를 이용하여 교육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교사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교과서를 참고자료로 사용하려 해도, 실제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그리고 국정교과서와 검·인정 교과서 간의 구분이 안 되어, 교육과정 문서에 담긴 다양한 가치와 내용을 교사의 철학을 반영하여 수정하거나 재구성할 수 없게 된다.

물론 우리사회에서 여전히 교과서가 교육의 전부라는 사고가 강해서, 교과서가 수단이자 일부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교과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다차원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거나, 교과서의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교과를 교차하는 테마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프로젝트기반 학습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교과서를 안 가르치고 교사 마음대로 가르친다거나 놀기만 한다는 등의 왜곡된 비판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교육의 영역 안에서 교사가 자유로워야 학생들의 배움이 보다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은 교육선진국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핀란드를 비롯한 교육선진국들은 교과서를 교육과정과 동일시하는 교과서 정책에서 벗어나 교과서의 위상을 참고자료로 바라보면서 교과서 자유발행제도를 실행하여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함으로써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이 가능해졌고 성취도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가져왔다.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어떤 교사든 동일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잘 만들어진 요리책과 같은 교과서를 보급하는 것보다 교사를 단순한 수업 기술자가 아닌 교육과정을 재맥락화(recontextualized)하는 전문가로 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문재인정부가 약속한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추진하겠다는 교육공약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㉔

학습부진의 벽, 해법은?



학생이 열 명 있으면 열 명 모두 그 수준이 다릅니다. 모든 학생이 저마다 다른 수준이라고 생각해야 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교실에서 만나는 수많은 학생들 모두 저마다 다른 수준으로 학습해갑니다. 당연히 어떤 교실인지 우수한 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선생님들을 전국 강연에서 만나왔습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수준차를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방과 후에 남겨놓고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도 있고, 기초학습을 돕는 보조강사가 따로 지도하기도 하고, 선생님이 직접 부진학생을 가르치시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은 수업 시간에 해결하는 것이겠지요.

수업 시간에 학습부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수업 시간에 작고 사소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으로도 학생들의 학습부진을 예방하고 이미 깊이 배어 있는 나쁜 학습습관들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학습부진 예방 전략

① 책상 위에는 일체의 다른 물건을 꺼내놓지 않도록 합니다.

부진한 학생들 대부분은 집중력이 쉽게 흐트러지고 다른 물건을 만지작거리면서 수업에 좀처럼 몰입하지 못 합니다. 이런 학생들은 물론이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손장난할 만한 물건을 아예 내놓지 않게 지도하는 게 좋습니다. 책상 위에는 책, 공책, 필기구만 내놓고 나머지는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지도하세요.



② 어려운 단어가 나올 때는 반드시 지도합니다.

학습부진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꾸준히 모르는 내용들이 쌓여갈 때 학습부진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과목마다 학생들이 처음 만나는 단어는 꼼꼼하게 개념과 뜻을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③ 배운 내용을 학습일지로 정리하게 합니다.

배운 것은 스스로 익혀야만 자신의 것이 됩니다. 배운 내용은 꼭 간단하게라도 내용을 정리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습일지 쓰기는 학생들의 복습을 책임지는 가장 쉽고 활용도가 높은 방법입니다. 배운 내용과 수업 시간에 궁금했던 것, 생각했던 것, 더 알고 싶은 것 등을 써보게 하고, 학습일지 쓰기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 본인의 수업 태도를 반성하게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평가하는 시간을 거치면서 수업에 더욱 열심히 참여하게 됩니다.

(예) 학습일지
2018년 10월 30일
사회 시간에 근대화 과정에 대해서 배웠다. 선생님께서 근대화에 대해 설명해주셨는데, 근대라는 말과 근대화라는 말이 조금 헷갈렸다. 근대는 최근 시대를 줄인 말이라고 했는데, 현대보다 이전의 시대를 말한다고 한다. 근대화는 근대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 변화를 뜻하는 말이라고 했다. 오늘 수업 내용은 조금 어려워서 들을 때 궁금한 게 많았는데 미처 질문하지 못하고 넘어간 게 있었다. 오늘 내 수업 태도는 80점인 것 같다.

④ 밑줄을 치거나 핵심어를 찾는 등 자료를 읽을 때 적극적인 읽기 전략을 사용하게 합니다.

밑줄을 치게 하거나 문장의 핵심어를 찾아보게 하면 그냥 읽을 때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글을 읽게 됩니다. 단순한 읽기보다 적극적인 읽기가 더욱 큰 학습 성취를 가져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아이들이 문장 하나를 읽을 때에도 꼼꼼하게 새겨서 읽도록 지도해주세요.



⑤ 복습을 철저하게 시키고 중요내용은 꾸준히 반복해서 지도합니다.

복습보다 좋은 공부도 없습니다. 학습부진이 생기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역시 복습을 잘 하는 것입니다. 꼼꼼하게 배운 내용을 체크하도록 단원평가, 형성평가 등을 활용하도록 하세요. 중요내용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외울 수 있을 때까지 지도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존재입니다. 방법을 가르쳐주고 적절하게 이끌어준다면 어떤 아이든지 성장하고 발전해갑니다. 선생님들께서 믿어주시고 격려해주신다면 반드시 선생님들의 믿음에 아이들이 보답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㉞

공공의 적 형진이

선생님께 비판적이고, 친구들을 끌어내리는 아이, 학급에서 중심이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갑질을 시전하는 중이다. 이런 아이는 어떻게 지도하나?



형진 문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상담실을 찾아왔다.

“선생님, 저희 반에 정말 눈꼴신 애가 있어요.

모두 애 때문에 난리예요.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어요?” 하고 호소했다. 그 아이(형진)는 3월 초 교실에 들어오더니 학급훈

액자가 걸린 사물함 위에 자신의 명품 신발을 올려놓고 누구라도 치우면 화를 냈다. 거긴 아무도 물건을 올려놓으려 생각하지 않는 곳이었는 데도 말이다. 아이들이 자기 의견을 말하면 머리를 쓰다듬으며 ‘뭘 좀 아네.’ 하고 하수 취급을 했다. 5월 체육대회 때 담임선생님이 ‘내 카드를 가지고 가서 음료수와 빵 한 개씩 사 먹어라.’ 하셨을 때, 아이들은 선수로 뛰는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비싼 것을 사고 응원하는 아이들에게는 보통 것을 샀는데, 애는 다 알면서 아이들 사이의 불문율을 무시하고 선수용 빵과 음료수를 가지고 가면서 ‘왜들 이래? 선생님이 먹으라고 했잖아!’ 했고, 이 사건 때문에 학급 전체의 반감을 샀다. 게다가 **형진이는 자기보다 못한 아이를 알보고 괴롭혔다.**

11월에 아이들은 수능을 치르는 3학년 형들을 위해 돈을 모아서 엿이며 초콜릿을 사려고 할인 마트에 갔는데, 아이들이 모은 돈을 지불하려 하자 그 아이는 전화로 엄마를 부르더니 현금은 자신이 가지고 대금은 엄마 카드로 그었다. 상당한 액수의 포인트를 챙긴 셈인데, 나중에 모든 아이들이 그 비열한 행동을 알고 화내자 ‘어차피 너희들이 안 챙길 것 같아서 내가 챙겼는데 뭐 지랄이야!’ 했다. 이 일로 **형진이는 공공의 적이 되었다.**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분필로 형진의 뒤통수를 맞히자 그는 ‘자수해! 안 하면 고발할 거야!’ 했지만 아이들은 모른 채했고, 세 번째 분필이 뒤통수를 맞히자 벌떡 일어나 ‘너희들처럼 가정교육을 못 받은 놈들하고 못 살겠어. 모조리 학교폭력으로 고발해서 학교를 못 다니게 할 거야!’ 하고 집으로 가버렸다. 그리고 학급단체톡으로 7명을 지적하면서 빨리 와서 무릎 꿇고 빌지 않으면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할 것이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상담실에 온 학생은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서 찾아온 것이다.

형진은 상담을 받으면서 배려, 사랑, 겸손, 고운 말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눈빛이 부드럽고 볼이 장밋빛으로 변했다.

형진 지도

상담선생님이 형진을 조롱하고 분필로 모욕했다는 7명을 불렀다. 그 아이들이 와서 말했다. “선생님, 형진이는 정말 독특한 캐릭터예요. 같이 지내기 너무 힘들어요. 저희들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 그 애한테 비하면 새 발의 피예요. 저희들도 할 말이 많아요. 참다못해서 그런 거예요. 학교의 벌을 받아도 형진이가 더 많이 받을걸요. 해볼 테면 해 보라지.” 했다. 담임선생님이 와서 말했다. ‘전따라고 아세요? **자신이 학급 전체를 따돌리다가 전체에게 따돌림당한 아이 말이에요.** 애는 고발왕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마음에 안 드는 아이는 흠을 잡아서 학생과에 보내서 처벌을 받게 했어요. 저도 지치네요.’

부모님을 학교로 모셨더니 보통 엄마가 오시는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아빠가 오셨다. 굳은 얼굴로 “저번에 형진이 상담하실 때 팔을 잡고 강제로 상담실로 몰아넣고 1시간 동안 야단치고 혼내셨다면서요?” 했다. 상담선생님이 “커피를 대접했고 담임선생님이 옆에 계신 가운데 부드럽게 사건만 알아본걸요.” 하자 아빠는 당황하셨다. 상담선생님은 잘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형진이와 관계된 사건들을 말씀드리고 **‘함께 힘을 합쳐서 형진이를 좋은 사람으로 만듭시다.’** 하고 간절하게 부탁했다. 아찔한 순간이 왔다. 자칫하면 내 자식이 피해를 당했는데 서로 화해하라니 ‘정신이 나갔소’ 하거나 ‘결국 우리 애가 성질이 더럽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선생님도 고발 대상입니다.’ 하면 헛일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형진 아빠가 쓸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제가 형진 엄마와 헤어지고 재산도 잃고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일하던 법률 사무소에 딸린 작은 단칸방에서 형진이 하고 3년 동안 지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때 그 애가 뭘 배웠겠습니까? 법을 이용해서 남을 이기는 어른들의 세계를 먼저 배운 것 같네요. **저도 아이에게 ‘일류가 되어라.’, ‘때릴망정 맞고 다니지 말라.’ 했고요.**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아이에게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전 얼마 전 재혼을 했습니다. 애한테도 엄마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이제부터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게 해야겠어요.” 아빠는 돌아갔고, 다음날 서로 신고한 사건들은 다 사라졌다.

그 후 형진이는 상담을 받으면서 배려, 사랑, 겸손, 고운 말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눈빛이 부드럽고 볼이 장밋빛으로 변했다. 우연히 비가 많이 내리던 날 형진이를 만났더니 우산을 두 개 들고 있었다.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전 비 내리는 날은 우산을 두 개 들고 다니기로 했어요. 우산 없이 다니는 아이들이 있으면 주려고요.’ 상담선생님이 가만히 바라보노라니 그는 싱긋 웃으며 친구에게 우산을 쥐여 주고 같이 나갔다. 두 개의 우산이 참 정겨워 보였다. ㉞

2억 4,000만 자에 담긴 조선의 모든 것

‘조선왕조실록’은 1997년 “세계에서 가장 상세하면서도 포괄적인 역사 기록물”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에 관한 유네스코의 설명에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다. “태조 때부터 철종의 통치기에 이르는 470여 년간의 왕조의 역사”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제국 시기를 포함하면 조선왕조는 순종까지 518년간 존립했다. 고종과 순종의 실록은 어떻게 된 것일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승정원일기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이 만들어진 것은 일제 강점기였다. 1927년부터 1934년까지 시노다 지사쿠(篠田治策)와 오다 쇼고(小田省吾)라는 두 일본인 책임 아래 편찬되었다. 식민주의적 시각이 편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이 일본에 의해 강제로 개항된 1876년 이후의 기록은 이전에 비해 매우 소략하다.

두 실록에 이 같은 흠결이 있다면 구한말 역사 연구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다. 다른 기록들도 있지만 무엇보다 ‘조선왕조실록’보다 더 상세하고 더 포괄적인 조선 시대의 역사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2001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승정원일기’가 그것이다. ‘승정원일기’에는 국왕의 비서실 격인 승정원에서 왕명의 출납과 관계된 모든 사실이 수집되고 기록되어 있



다. 아쉽게도 임진왜란 이전의 기록과 이후의 일부 내용이 불에 타거나 사라졌지만, 다행히 고종과 순종 때의 기록은 온전히 남아 있다. 모두 해당 임금이 살아 있을 때 편찬된 생생한 1차 사료들이다.

‘조선왕조실록’도 그 방대한 분량을 보면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지만 ‘승정원일기’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조선 왕조 전 시기를 포괄한 ‘조선왕조실록’이 4,964만 6,667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조(재위 1623-1649) 이후의 기록만 남아 있는 ‘승정원일기’는 대략 2억 4,250만 자를 담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기록했기에 이렇게 천문학적 규모의 사료가 만들어졌을까?

승정원에서 기록을 담당하던 관리는 정7품 주서였다. 주서는 왕을 따라다니며 그 언행을 일일이 기록해 사초(史草)로 남겼다. 또한 승정원을 통하는 모든 문서를 베껴서 정리해 두었다. 승정원은 왕에게 올라가거나 왕이 내려 보내는 모든 문서를 다루는 곳이므로 주서는 여간 바쁜 자리가 아니었다. 한자를 빨리 쓸 수 있는 초서체에도 통달해야 했다. 사초와 기록이 쌓이면 한 달에 한 번씩 한두 권의 책자로 묶는데, 이것이 바로 ‘승정원일기’이다.

전체 22%만 한글로 번역... 남북 공동 번역 제안

현종 때 승정원 주서를 지낸 이담명(李聃命, 1646-1701)이

라는 관리가 있었다. 이담명은 1672년(현종 13) 6월 18일부터 1675년(숙종 1) 5월 8일까지 약 3년간 사초를 작성했다. 이렇게 승정원에서 작성한 사초는 실록의 1차 자료로 춘추관에서 작성하는 사초와 구분해 ‘승정원사초’라 한다. 사초는 실록을 만들고 나면 물에 깨끗이 씻어 기록을 지우는데, 이를 세초(洗草)라 한다. 승정원사초도 ‘승정원일기’를 만들고 나면 세초를 한다. 그런데 이담명은 어찌 된 일인지 자신이 쓴 승정원사초를 개인적으로 보관하다가 후손에 물려주었다. 덕분에 우리는 승정원사초가 어떤 내용을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한 것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담명 한 명이 3년 동안 기록한 사초만 해도 161책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현종실록』과 『현종개수실록』을 다 합쳐도 ‘이담명승정원사초’의 1/3에 불과하다. 승정원사초의 일부 내용만 ‘승정원일기’에 수록되고, 다시 ‘승정원일기’의 일부 내용만 ‘조선왕조실록’에 실린다. 남아 있는 2억 4,250만 자의 ‘승정원일기’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있다.

‘승정원일기’는 2018년 현재 전체의 22%만 한글로 번역되어 있다. 한국고전번역원은 ‘승정원일기’의 완역을 앞당기고 남북 문화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북한에 공동 번역을 제안했다. ‘조선왕조실록’보다 훨씬 더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승정원일기’가 남북 공동으로 완역되면 역사 연구뿐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에도 신기원이 열릴 것이 틀림없다. ㉠

빛고을 광주의 온기

알곡을 늘어뜨린 벼가 마지막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가을의 끝자락이다. 온통 누렇고 별걸다. 제야의 종을 울린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나를 앞질러 간 것인지 2019년을 어느덧 두 달 남겨두고 있다. 얻은 것과 잃은 것, 정리한 것과 시작한 것, 더해갈 이야기와 묵은 이야기. 지난날을 반추하며 새해의 밑그림을 그려야 할 때다. 오늘을 다지며 내일을 꿈꿀 시간이 거저 주어지지 않을 터. 일상의 여백을 마련해야겠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있을 때면 번번이 손을 내밀어 주던 내 오랜 벗, 광주시로 간다.



1. 펭귄 마을 사연이 적힌 표지판
2. 3. 펭귄 마을 골목

폐허가 된 땅을 되살린 펭귄 마을

화재가 쓸고 간 후 폐허가 된 땅을 되살려 냈다는 역사가 깃들어 있는 양림동 펭귄 마을로 간다. 마을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쓰레기를 치우고 텃밭을 가꾸고 길목을 단장한 이 마을은 이제 광주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 아기자기한 그림과 기분 좋은 글귀로 채워진 나지막한 담장과 텃밭과 구멍가게와 거리 곳곳의 예술품들이 여행객의 발을 이끈다. 마을 한쪽 벽을 가득 채운 낡은 시계 때문일까, 마을로 들어갈수록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안 생길 것 같죠? 생겨요, 좋은 일.'이라는 기분 좋은 문구를 곱씹어 본다.

'서양촌'으로 불리던 역사문화 마을

웃음 속에 눈물을 머금고 있는 듯한 도시 광주가 다음으로 전해온 이야기는 바로 옆 양림동 역사문화 마을에 있다. 1900년대 초부터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이곳 양림동은 이후 서양식 가옥, 병원, 학교, 대학 등이 설립된다. 나환자 치료에 일생을 바친 우일선(월슨) 선교사 사택으로 향한다. 회백색 벽과 붉은 지붕의 독특한 외형 때문에 이 근방을 서양촌이라 부르게 되었다더니 2층 벽돌 건물이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이 들게 한다. 우일선 선교사가 고향에서 가져온 종자로 기른, 수령 100년이 넘는 죽은 은행나무를 돌아와 이룬 곳에 피터슨 목사의 사택이 있다. 피터슨 목사가 1980년대 신군부의 폭력을 증언했다는 설명에 가슴이 울린다. 수령 400년이 넘는 호랑가시나무를 지나 수피아 여자 중고등학교로 간다. 이 학교는 미국 선교사 유진벨





4. 건물 한 벽면에 만든 역사문화 마을 지도
5. 선교사로 광주에서 활동하다 순교한 오웬과 그 할아버지를 기념한 오웬기념각
6. 의재 미술관 입구
7. 1904년 지어진 광주 양립교회 예배당

사택이 있던 사직도서관 근처에서 여학생을 가르친 데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이후 이곳은 미국의 한 부인이 여동생 수피아를 애도하고자 기부한 기금으로 수피아 홀을 준공하면서 수피아 여학교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학교를 중심으로 들어선 수피아 홀, 커티스 메모리얼 홀, 윈스브로우 홀 같은 이색적인 건물들이 건물 박물관에 온 듯한 착각이 들게 한다. 이 길에 서린 이루 말로 다 할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가 길목 곳곳에서 전해져 온다.

예술이 깃든 윤림동 미술관 거리

조성룡 건축가와 김종규 교수가 공동 설계한 의재 미술관을 찾는다. 하늘, 땅, 사람을 사랑한다는 삼애를 신념으로 삼았던 화가, 의재 허백련. 춘설 녹차밭을 배경으로 있는 미술관 둘러본다. 얼마나 더 긴 세월을 채워야 허백련 옹이 먹에 담아낸 삼애의 깊이를 알 수 있을까. 먹의 농담과 붓의 필치가 남긴 여운을 머금고 춘설현으로 들어간다. 춘설현은 허백련 옹이 30여 년간 다도와 그림을 즐겼던 무등산 숲의 고옥이다. 숲은 깊고 고옥은 적요하며 나무는 하늘을 향해 쪽 뻗어있다. 빈집과 대가의 숨결과 자연의 품이 어울려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이 되어 있다. 여기가 어느 곳보다 더 오늘의 광주에 닿아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지나간다. 갈 길 바쁜 여객은 다음을 기약하며 윤림동 곳곳에 자리 잡은 무등 현대 미술관과 우재길 미술관을 눈에 담는다.



8. 우재길 미술관 전경
9. 의재 미술관 내부
10. 무등 현대 미술관 전시 내부
11. 한국남중화의 대가 의재 허백련이 기거하며 작품 활동을 한 춘설현



2년마다 열리는 국제현대미술제

2018년 가을의 광주는 비엔날레를 문패에 내걸고 있다. 1995년 시작된 이 국제현대미술제는 ‘광복 50주년’과 ‘미술의 해’를 기념해 시작, 2년에 한 번씩 손님을 맞는다. 그 중심에는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이 자리 잡고 있다. 민주 정부 수립, 신군부 세력 퇴진, 제엄령 철폐를 외치다 세상을 등진 이들의 눈물을 닦아내고 그들의 정신을 길이 기리고자 하는 것이다. 12회째에 접어든 광주비엔날레는 국경과 국적, 인종과 민족을 넘어선 자유로운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있다.

2018년의 광주비엔날레는 ‘상상된 경계들(Imagined Borders)’이라는 제목 아래 42개국 163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비엔날레 전시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주제전은 기존의 단일 총 감독제도에서 벗어나 11명의 큐레이터가 협업을 통해 7개 전시를 구성, 유동과 노마드로 대변되는 현대를 ‘경계’를 화두로 풀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비엔날레와 차이를 보여준다.

거대한 아픔을 지고도 앞으로 씩 없이 한 걸음씩 나아가준 이 도시의 걸음걸이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한해의 끝자락, 정리하고 곱씹어 보아야 할 것은 내 지난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과거이기도 할 것이다. 광주가 손을 내민다. 그 손 위로 아물지 않은 상처가 보이는데도 네 가슴이 녹아 보이니 내 손을 잡으라고, 다시 찬바람 이는 계절이 왔으니 이 온기로 또 한 계절을 나보라고 말을 걸어온다. 내 무심함이 이 도시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지 않기를. 이 온기를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할 수 있기를. ㉞

NEWS BRIEFING

happyedu.moe.go.kr 2018.11

교육부, 유치원 방과후 '놀이 중심 영어' 허용



교육부는 놀이 중심 유아교육의 방향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부모의 영어교육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서 놀이 중심 영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각계 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최우선으로 '놀이와 휴식 중심의 방과후 과정 운영 원칙' 하에 유치원 방과후 놀이 중심 영어의 과정 운영을 허용하도록 하기로 하였다. 향후 시·도교육청에서 놀이 중심 영어의 원칙 하에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치원 방과후 과정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며, 또한 놀이 중심 영어의 운영 기준을 벗어난 불·편법 운영 사례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철저히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방과후 놀이유치원을 대폭 확대하고, 발달단계에 적합한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제고하는 정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장애학생의 꿈을 디자인하는 시간



교육부는 전라북도교육청과 '내 꿈을 디자인하는 시간'을 주제로 '2018 전국장애학생직업기능경진대회'를 개최했다. 1968년에 시작되어 올해 47회를 맞은 이 대회는 그동안 장애학생의 직업기능 향상과 대국민 장애인해 및 인식개선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이 대회는 장애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직업기능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목적으로 감각·지체장애(시각·청각·지체장애) 영역과 발달장애(지적·정서·행동, 자폐성장애) 영역으로 나누어 격년으로 개최되는데 올해는 17개 시·도교육청을 대표하는 감각·지체장애학생 223명이 1박 2일 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발휘하고, 문화공연 등에 참여하면서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2018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 개최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함께, 10월 12일(금)부터 13일(토)까지 부산광역시 벡스코 전시장에서 「2018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소프트웨어(SW) 교육 페스티벌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 학교 SW교육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 전반의 SW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2018 페스티벌은 '언제나, 어디에나, 누구나 바로 내! SW교육'을 주제로, 지역의 특화 SW교육에 대한 공유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자리를 마련한 것과,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해 국내 SW교육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글로벌 SW교육 포럼을 신설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당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확정



교육부는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즉각 추진과제로는 유아의 학습권 보장, 국·공립 유치원 확대 그리고 유치원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제도 개선과제로는 학부모 참여 강화, 투명한 회계 운영,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은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강화하기 위해 근본적인 접근을 한 대책으로, 유아교육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 설명하며, 문재인정부는 당초 2022년까지였던 국·공립 유치원 40% 확보시기를 앞당겨 조기에 국정과제를 달성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당초 500학급 확보를 1,000학급까지 확대하고, 병설형 단설 유치원 신설, 유치원 매입, 병설학급 증설 등 다양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교육의 미래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관한 시민사회 경청회 개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순회 개최하는 '우리 교육의 미래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관한 시민사회 경청회'의 첫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경청회는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의 본격적 추진을 앞두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과 미래사회 전망 및 교육비전 방향, 중장기 교육정책 의제 등에 대한 각 지역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청회를 통해 수렴된 주요 의견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상을 정립하는데 참고하고, 향후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의 중장기 교육비전 수립(초안)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3시간 동안 진행되는 경청회는 김진경 교육비전특별위원장의 모토발언을 시작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과 교육정책 의제 제언에 관한 지정토론, 시민과의 열린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국가 간 학위 인정을 위한 국제 전문가 회의 개최



교육부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본부는 「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에 관한 아태 협약 지역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 참여한 아시아 및 유럽 40여 개국의 고등교육 관계자들은 국가별로 서로 다른 고등교육체제에 대한 상호 이해도를 심화하고 국가 간 학위 인정을 통한 학술교류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지역위원회는 특히 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에 관한 아태 협약 개정안(도쿄협약)이 올해 초에 발효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지역위원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는 이번 지역위원회의 개최국으로서 국내·외 학위 상호 인정을 촉진하고 학술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이번 지역위원회를 계기로 한국 국가학위정보센터를 설립하고, 국내·외 고등교육정보 제공을 포함해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로체험 지원 전산망 '꿈길', 학교 밖까지 개방



교육부는 2018년도 하반기부터 진로체험지원 전산망 '꿈길' 서비스를 초·중등학교 이외의 다양한 청소년 지원기관으로 확대하고, 청소년이 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역사회의 진로체험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였다. 그동안 청소년 지원기관에 '꿈길'을 개방하여 달라는 요청과 개인의 진로체험 지원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있었으며, 이에 학교 밖 청소년 등 교육소외계층의 진로체험 기회를 넓히고, 개인의 진로체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꿈길'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 관할 가정형 위(Wee)센터, 위(Wee)스쿨 및 학교 폭력 피해학생 전담기관과 여성가족부 관할 청소년꿈드림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반 학교와 동일하게 꿈길을 이용하여 진로체험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관련 부처와 협력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청소년 지원기관을 발굴하여 진로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일본의 '독도, 역사 왜곡 교육' 오류와 한계 조명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 초·중·고 개정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 고시와 관련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공개한 초·중·고등학교 개정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의 한국 관련 영토 및 역사 왜곡 기술을 분석하여 내용의 오류와 한계를 분명하게 밝히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교육부는 토론회와 별도로 독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영토 주권 수호 의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동북아역사재단과 함께 '독도교육 영상자료' 방송 및 '독도 체험 발표대회 본선'을 개최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독도의 역사를 왜곡하고,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유관부처와 힘을 모아 적극 대응해 나아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함께 뛰고 땀 흘리며 성장하는 학교스포츠클럽 한마당



교육부는 제11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학년 초부터 약 8개월 동안 교내 대회와 교육지원청 리그 대회, 교육감배 대회에 참가하여 선발된 초·중·고 2만여 명의 학생들이 23개 종목에 걸쳐 각 시·도 대표로 참가하였으며, 올해는 시·도교육청과 대한체육회가 대회를 공동주관하며 체계적인 대회 운영을 위한 물적·인적 지원 등의 협업을 통해 참가 학생들의 스포츠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부는 그동안 1학생 1스포츠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우수한 학교스포츠클럽에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참여 효과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인성 발달과 학교생활 개선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이 활동에 더욱 흥미를 갖고 대회를 진지하게 준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2

10월호



명예기사의 까칠한 수다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과 학교의 역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해외 주요국에서 오후 3시 이후 모든 학년이 동시에 하교하는 전일제 학교 운영을 미래 교육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교육계는 제시한 방안의 실효성과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이유로 비판적인 견해를 내놓은 반면, 인구구조와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옳다고 보는 반대 관점도 존재합니다. 명예기자들이 지난 호 <교육별전> 그 뒷이야기를 전합니다.

김민중 교사

기본적으로 학생이 학교에 더 남으려면 남아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행정 편의와 돌봄 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학생의 의견은 무시하고 남으려면 남을 것이라는 발상이 위험합니다. 더 오랜 시간 돌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학생들의 의견을 실제로 수렴하고 방과후 학교나 돌봄교실의 활용으로 긍정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교를 늦추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교사의 집단이기주의, 일 회피의 핑계 이렇게 몰아가는 분위기도 문제입니다. 저를 비롯한 대부분 교사는 일 더 하라는 정책에 크게 반발하지 않습니다.

안정미 학부모

맞아요. 모든 학생의 하교시간을 오후 3시로 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찍 하교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은 학생도 있을 테니까요! 뭐든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또 다른 자유를 억압하는 것 아닐까요?

강은아 / 조선영 학부모

현재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오후 4시까지 방과후 수업이 진행됩니다. 귀가는 학교 셔틀버스로 집 앞까지 태워주고요. 아들은 셔틀버스에 승차하기 전 남는 30분을 운동장에서 형들과 땀을 뻘뻘 흘리며 축구를 하고 차량 도우미 선생님의 종용에 억지로 셔틀버스에 올라타곤 합니다. 지금의 학교생활을 '격하게 온몸으로 즐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으로만 떠밀지 말고 또, 지자체 돌봄으로만 떠밀지 말고 온 마을이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조원표 교사

초등 돌봄교실이 단위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지역 돌봄 서비스 기관과의 협력과 연계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내실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초등 돌봄교실 특별 프로그램의 경우 무상 프로그램에 의존하기보다는 수익자 부담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현태 / 양묘생 교사

언제부턴가 학교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고, 올바른 민주시민을 기르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돌봄이라는 미명하에 학생들을 밤 9시까지 남겨두는 곳도 생겨났습니다. 학생들이 부모와는 언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교육과정이 개정된 후 늘어난 수업으로 학생들이 오후 수업을 할 때 정말 힘들어하고 집중을 못 합니다. 온종일 돌봄은 또 다른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어요.

노호룡 학부모

학교의 돌봄이 부담이 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지역단체와 관련 기관 그리고, 학교가 협력하여 돌봄의 정책이 제대로 진행돼야 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으로 그리고 직장에서의 돌봄교실 확충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따른 예산확보와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엄마, 아빠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돌봄나눔방 등을 각 지역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도 생긴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호 독자 리뷰

지금! 혁신교육을 읽고

지난 호 가장 인상적인 기사는 봉명중학교 기사였다. 특히 학생들이 수학여행의 목표와 스케줄을 직접 정하고 팀별로 다니는 것이 기존의 수학여행보다 더 수학여행의 본질적인 의미를 발현한다고 생각했다. '성장'은 시간이 필요함을 전제로 한다. 이 기사의 표제처럼 봉명중학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믿음 기반의 기다림을 주는 학교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 모니터단_이지영

학급운영노트를 읽고

학습된 무기력을 보이는 학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좀처럼 상황이 나아진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 힘이 빠지고 지쳐가기도 했다. 그런 경험 탓에 더 글을 자세히 보았는데, 매일 조금씩 나아진다는 믿음은 학생에게도 중요하지만 교사에게도 중요하다는 말이 마음에 와 닿았다. 글을 읽으면서 다시 믿음을 가지고,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 다시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좋았다. 모니터단_이슬이

Event

11월호 <특별기획>을 읽고 '평생'을 키워드로 톡톡 튀는 재미난 이행시를 지어주세요.

다음달 5일까지 **행복한 교육**(<https://happyedu.moe.go.kr>)

홈페이지 → 이벤트 참여에 남겨주시면, 당첨되신 분께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문의 02-2271-0992

지난호 당첨자

김진호 인천 강화군 중앙로 253-1

박혜영 서울 강북구 한천로140길

윤예진 경기 파주시 송화로 13

교과서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One-stop으로!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TIOS

교과서는 어디서 사야 하지? 교과서 불량은 어디에 신고하지? 사소한 일이지만 많이 답답하셨나요?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는 교과서 관련 민원을 One-stop으로 처리합니다. 교과서 구입·주문, 수정·보완, 내용·정보, 파본·교환, 교과서 정책, 그리고 제안까지 -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TIOS)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교과서 민원 처리는 Yes, TIOS!

● TIOS란?

"Textbook Information One-stop Service"의 줄임말로, 교과서 민원 창구를 하나로 통합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정확하게 교과서 민원을 해결합니다.

● TIOS이용방법

☎ 1566-8572
www.교과서114.com
www.textbook114.com



행복한 교육 웹진에서 더 다양한 교육정보를 만나보세요.

<https://happyedu.moe.go.kr>

정확한 교육정책과 학교 현장의 생생한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행복한 교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구독을 신청하시면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문의 02-2271-0992

발행일 2018년 11월 15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편집인 대변인 임창빈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최성부
교육연구사 정용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변인실 431호
TEL 044-203-6573

편집실

기자 이순이 한주희

사진 김경수 이대원 최원석

디자인 홍지화 홍수명

마케팅 류광민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종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촌

TEL 02-2271-0992